백두-한나

주체112(2023) 6
http://www.paekdu-hanna.com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백두 -한나

주체112(2023) NO.340



선교편직공장

인기있는 <<갈매기>>상표 제품들이 평양시안의 백화점들과 상점들에서 판매되고있다.



《갈매기》 상표를 단 운동복, 겉옷, 속옷, 수영복, 샤쯔 등은 형태와 색갈이 다양하고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옷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다종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과 설계를 생산에 도입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들 누구나 기술학습의 주인이 되고있다.

련관단위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소형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창의고안으로 염색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모든 가공공정들에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매 편직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재단직장의 기대공들은 공장도안실과 기술준비실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형태의 편직물에 대한 재단을 과학기술적으로,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한나
PAEKDU-HANNA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ijiating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중국소식
zhongguoxiaoxi

국제단신
guojiduanxin

상식
changshi

앞표지:
6.1국제아동절
친선련환모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과학적이며 강력한 령도실천에 의하여 우리 위업의 불패성과 강인성이 만방에 더욱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나가는 전인민적투쟁이 심화되고있는 속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부흥의 웅대한 목표들의 완벽하고도 실속있는 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원회의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만난을 과감히 돌파하며 쟁취한 값진 승리,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계속전진, 련속도약으로 공고히 해나갈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전투적기세를 격양시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８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１１２(２０２３)년 ６월 １６일부터 １８일까지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６차, 제７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올해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와 내각의 해당 부서 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 도농촌경리위원장들, 성, 중앙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１.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２.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

３.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４.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５.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

６.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첫째 의정 《올해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보고를 청취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상반년기간의 간고하고도 격렬한 투쟁환경속에서 이룩한 혁혁한 성과들이 총화되였다.

그 어느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의 군사적모험책동과 반동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과 발전리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비록 주객관적형세는 불리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투쟁으로 난국을 타개하면서 당건설과 국익수호, 경제건설, 문명건설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고무적이고 전진적이며 자부할수 있는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당중앙이 국가경제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며 ５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



하기 위한 전인민적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한데 대하여 보고는 개괄하였다.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켜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것을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영농물자보장과 농촌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 제시된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석탄, 기계, 림업, 철도를 비롯한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이 전진할수 있도록 중대조치를 취하고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운 결과 년초에 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던 불안정한 파동성이 현저히 극복되고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생산장성률이 뚜렷하게 높아지고있다.

보고는 인민경제발전 １２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７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고 평남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은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로 대대적으로 파급, 확산되고있으며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이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높아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앞장에서 전진하고있다.

건설부문에서 화성지구 １단계 １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준공한데 이어 추가된 ２，０００세대 살림집건설을 끝내고 대평지구 １，４００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속하였으며 새로운 농촌마을들을 련속 일떠세워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현재 화성지구 ２단계 １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당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라는 철석의 신념이 더욱 억세게 자리잡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의지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된것이야말로 그 어떤 경제적장성에도 대비할수 없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

보고에서는 상반년기간 국가경제정책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발로된 일련의 결점과 페단들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과 극복방도들이 언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농업의 지속적, 전망적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현실적인 과업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상반년도 경제사업에서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페단들이 엄정히 분석되였다.

올해 내세운 높은 투쟁목표들과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현실은 국가경제의 기둥인 주요공업부문들이 생산에서 편파성을 극복하고 이미 도달한 장성계선을 공고히 하며 보다 기세찬 투쟁으로 경제전반의 새로운 고조를 견인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의도는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한 각 부문들에서 추진하고있는 정비보강대상들과 개건현대화대상들을 완공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하반년에는 자립경제의 속살을 다지는 의의있는 준공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공사량이 제일 많은 올해 각 건설지휘부들에서 건설자들의 앙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건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설계와 시공의 질을 완벽하게 보장하면서 완강한 공격전으로 공사일정을 드팀없이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새기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청년들의 고조된 애국열의가 빛나는 위훈창조, 기적창조로 이어질수 있도록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적극 고무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현시기 당에서 중시하는 정책적과업들의 실행정형에 주목하였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３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육아정책의 집행실태를 상세히 분석총화하였다.

지난 ２년간 도, 시, 군들에서 젖생산량을 늘이고 제품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였으며 젖제품을 공급하는 체계와 질서가 정연하게 수립되여 탁아유치원년령기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상적으로 젖제품을 먹을수 있게 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８기기간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제일 뚜렷한 변화의 하나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육아정책집행정형을 단위별로, 내용별로 우결함을 정확히 찾아 총화하고 젖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국토관리,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전망적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할데 대한 문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재정금융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답게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체계, 장악보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보고는 자립, 자력으로 국가부흥과 번영의 앞길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핵심전략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척후병, 주력군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과학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기술인재들을 통일적으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과 현시기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목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주분야개척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부단히 확대, 장성시켜 전망성있게 우주산업의 개척로를 열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국가적인 우주과학기술잠재력을 총발동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하여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조치를 제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보위사업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야 할 보위, 안전기관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강조하고 해당 부문들에서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책략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오늘 달라진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자위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으며 공화국무력이 갖추고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되였다.

걷잡을수 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되는 조선반도안전환경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적잠재력의 부단한 갱신과 자위력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조선로동당의 엄숙한 선언에 따라 당 제８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들을 성공적인 실체로 전환시킨 실천적인 행동들은 나날이 고도화되는 우리의 급진적인 전략무력건설속도와 강력한 군사기술력을 시위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공화국전략무력이 고도화된 군사기술력에 있어서나, 무기체계발전속도에 있어서나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를 이룩하고 현존하는 위력적실체로 장성강화되고있는 좋은 성과들을 평가하고 반면에 일각에서

나타난 간과할수 없는 결함들도 엄정히 총화하였다.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것이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군사정찰위성개발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전망과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보고에서는 위성발사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되였으며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정찰정보능력을 제고하고 우주개발분야에서 더 큰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을 마련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이 제시되였다.

핵, 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개발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나라의 핵전쟁억제력강화의 중요한 고비에서 크게 내짚은 훌륭한 걸음으로 된다고 확언하면서 정치국은 국방부문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핵무기발전방향과 핵력량증강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강위력한 핵무기증산실적으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적들이 의도적으로, 로골적으로 고취하는 군사적긴장격화책동에 대항하여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들을 지체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방안들과 대응방식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격돌하는 국제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련대를 가일층 강화하는것을 비롯하여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중대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고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과 주객관적환경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필수적인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반년기간에 당의 질적공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당사업에서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결점들을 분석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는 사업을 강력히 조직전개하여 당의 건전한 정치풍토와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당적조치들이 언급되고 올해 투쟁목표와 전략적과업관철에서 각급 당조직들이 주력해야 할 사업방향이 명시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악의 난관속에서도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일치단합된 힘으로 분발하고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국면에로 이행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함에 더 박차를 가하며 부여된 사명과 중임을 드팀없이 과감하게 떠메고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확실한 상승의 궤도에로 줄기차게 인도할수 있는 방략들이 제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내각총리 김덕훈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전현철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당과 국가의 존위와 직결된 중대사를 걸머진 무거운 책무를 항상 자각하고 당결정관철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면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을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동지가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개선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해당 부문에서 추진하여온 연구정형을 보고하고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 《각급 인민위원회 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 도, 시, 군인민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지니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조성, 활동성을 적극 발휘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강조되였으며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주인답게 전개하지 않고있는 일부 인민위원장들에 대한 자료통보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인민주권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가 발언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인민의 대표이고 국정의 주인인 대의원들이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책임적인 위치를 자각하고 높은 정치의식과 창의창발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하는데서 대의원선거방법을 개선해나가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국가주권의 인민적성격에 맞게 근로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적선거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서 연구한 새로운 대의원선거방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최룡해동지는 대의원선거방법에 대한 연구안을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당규률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용원동지가 발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이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으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신데 대해 언급하고 조용원동지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나아가고있는 현시기 당규률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용원동지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립각하여 규률감독부문의 기구체계,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연구한 정형을 보고하였다.

당규률건설을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시켜 강철같은 규률로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철저히 담보하며 조선로동당의 결백한 정치기풍을 변함없이 견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보강에서 현실적의의를 가지는 대책안이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기되였다.

전원회의는 ２０２３년 하반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기안하며 의정토의과정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심의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결정서초안에 반영된 과업들에 대한 진지하고 동원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기되였으며 과학성과 실현가능성이 엄밀히 검토된 계획들이 심의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종확정한 결정서초안들을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 결정서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최희태동지, 김선욱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김영철동지, 김영규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홍병철동지, 오영재동지, 김봉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강순남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으며 오수용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직접 보선하였다.

김영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해임 및 선거하였다.

오수용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오수용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최근영동지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속에 우리 혁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책적문제들이 구체성, 전문성, 혁신성을 띠고 진지하게 토의결정된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들이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에 의하여 빛나게 달성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자기 사업을 마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숭고한 리념과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높은 단상에 하루빨리 오를수 있게 백배의 자신심을 가다듬고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전면적부흥발전을 보다 용의주도하게 추진해나가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８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웅대한 투쟁목표실현을 위한 과감한 총진군을 줄기차게 가속화해나갈 전당의 노도와 같은 열의와 전진기상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된다.본사정치보도반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희세의 령장

대전해방전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소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어떻게 보기 좋게 꺾어버렸는가를 세계면전에서 똑똑히 보여준 조국해방전쟁사의 자랑스러운 축도이다.

대전해방작전의 서곡은 금강강행도하였다.

적들은 노도와 같이 진군하는 인민군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금강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이 계선을 《불퇴의 선》, 《최종방어선》이라고 떠벌이면서 《3년은 문제없이 지탱할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적의 강하천방어를 돌파해본 경험이 없는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은 금강도하와 관련한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모대기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금강방어선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전 방어구간에 방어진을 치지 못하고 도하에 유리한 몇개 지점에만 병력을 집중하다보니 방어에 빈 익측과 공간지가 있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도하지역의 너비를 보다 넓게 설정하고 적에 대한 속임행동을 잘하면 능히 금강을 일

거에 강행도하할수 있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명안까지 제시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련합부대들은 7 월 14 일부터 금강강행도하전투를 시작하였으며 이 작전에서 금강방어의 주력이라고 하던 미제침략군 24 보병사단 19 보병련대가 괴멸됨으로써 적들의 《최선의 방어진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말았다.

이에 대하여 한 미군종군기자는 자기의 글에서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번 전쟁의 완전한 모습을 리해하게 된것은 대전북방의 금강전선에서였다. 미국사람들은 그 전선을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미군이 모든 항공력량을 총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조선군은 도하에 성공하였으며 63 야포대대를 포위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은 하루밤동안에 대전 서남방향에 있는 난촌으로 전부 퇴각하여버렸다.》라고 썼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지략으로 빠른 기간에 금강을 강행도하한 전선련합부대들은 적들을 대전에 몰아넣고 족칠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조건을 마련하게 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강도하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던 그 시각 위대한 수령님께서 캄캄한 어둠속을 뚫고 성한데가 하나도 없는 림진강철다리를 건느시여 서울시에 자리잡고있는 전선사령부로 오고계시는줄 알지 못하고있었다.

새벽고요에 잠긴 서울시가에 조용히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길의 피로를 푸실사이도 없이 전선사령부 작전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현 전선정황에 대처한 작전전술안을 토의하는 회의에서는 대전포위와 관련한 문제가 기본으로 상정되였다.

미제는 금강의 《불퇴의 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자 미제침략군 24 보병사단과 1 기병사단을 비롯한 숱한 병력을 동원하여 대전을 기어이 고수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전쟁형세를 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대전에서 적들을 철저히 소멸하여야 하며 한놈의 적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짧은 시간내에 대전을 포위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대전해방작전에 참가하는 인민군련합부대들이 7 월 20 일까지 대전지역에 집결된 적들을 완전히 포위소멸하고 신속히 차후작전으로 넘어가도록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완전포위! 이것은 전멸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실상 작전개시전에 대전의 적은 이미 포위아니 전멸의 올가미안에 있었다. 그것도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포위전법에.

당시까지만 해도 대무력에 의한 포위작전은 대체로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들과 적의 량익측에서 타격하는 부대들이 일정한 종심에서 합치는 타격형식과 포위의 외부전선과 내부전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였다.

이것은 세계전쟁사의 굳어진 공식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법은 산이 많고 기동로가 제한되여있으며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실정에 맞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독창적인 포위전법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제 3 보병사단과 서울제 105 땅크사단이 대전 북쪽과 서북쪽에서 대전에 집결된 적을 압축하도록 하며 제 2 보병사단은 대전 동남쪽방향의 도로들을 차지하고 적들의 퇴각과 증원을 막으며 서울제4보병사단은 론산-남원방향으로, 제 6 보병사단은 우익을 보장하면서 강경방향으로 공격함으로써 대전해방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만일 제2보병사단이 계획대로 대전동남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론산-남원방향으로 공격하게 되여있는 서울제 4 보병사단의 일부 력량을 신속히 대전 동남쪽으로 우회시켜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증원을 막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아무도 관심을 두고있지 않던 대전 서남부의 론산계선에서 대전포위의 고리를 찾아낸 묘술은 항일대전시기 일행천리의 기민한 우회전법으로 적을 소멸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령활한 전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은밀하게 행군을 다그쳐 대전시가에 대한 완전포위망을 형성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의 행동이 얼마나 불의적이고 기동적이였던지 적들은 대전 남쪽 구봉산에서 인민군대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제놈들이 완전포위된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전에 포위된 적을 빠른 시간에 소멸하기 위한 독창적인 작전안을 내놓으시였다. 바로 땅크와 보병들로 구성된 소부대들이 먼저 대전시내에 들어가 적을 불의에 기습하여 적의 내부를 혼란시키고 서울제 3, 제 4 보병사단과 서울제 105 땅크사단이 대전 북쪽과 서북쪽, 서쪽에서 공격하여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도록 하며 대전 동남쪽으로 진출한 부대는 적의 기동로를 장악하고 퇴각하는 적들과 증원해오는 적들을 소멸해버리는것이였다.

7 월 20 일 새벽 3 시 두대의 땅크와 적은 력량의 보병들로 편성된 아군의 소부대가 시내를 종횡무진하며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데 이어 새벽 5 시 드디여 결정적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전시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이 하달되였다.

대전시가에 포위된 적집단에 대한 일대 섬멸전이 개시되였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은 포병화력의 엄호밑에 북쪽과 서북쪽 및 서쪽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넘어가 순식간에 적의 방어진지들을 점령하고 시가전을 벌리면서 적들을 소멸하였다. 인민군대의 포위망이 조여들자 적들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고 전투서렬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공격개시 7 시간만에 대전포위작전은 완전한 승리로 결속되였으며 《상승사단》이라고 떠벌이던 미제침략군 24 보병사단과 괴뢰 1 사단, 7 사단은 완전히 괴멸되고 그후 미군 24 사 사단장 띤은 포로되였다.

후날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한 미군장교는 《실록 한국전쟁》에서 《그것은 잘 정리된 전선을 유지하는 유럽식경험을 쌓은 미군사지휘관들이 이미 때가 늦었을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전술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대전해방전투는 갓 창건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가 적들에게 커다란 섬멸적타격을 준 안도현 소영자령에서의 매복전투, 시가전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면서도 유격전의 모든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립체적으로 맞물려 진행한 보천보전투, 적들의 교활한 술책을 미리 알고 시작전부터 아군의 승리를 확정하고 벌린 간삼봉전투, 일행천리전술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 대홍단전투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적용된 수많은 전법들과 전투경험들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 독특하고 성공적인 작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주체전법과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창조된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 없는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대전해방작전대형전경화(부분)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재중총련본부에서 할빈지구공민실태료해사업 진행

총련합회 본부에서 할빈지구협회 산하 조직들인 할빈시지부, 오상시지부에 대한 공민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 서한 발표 1 돐에 즈음하여 진행한 공민실태료해사업은 동포제일주의를 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총련합회가 공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며 그들을 조직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총련합회 본부 일군들이 본부와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생활상 애로와 사업상 곤난을 현지에서 직접 료해하는 이번 실태료해사업은 5 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진행하였다.

공민실태료해사업에는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 김령사동지. 총련합회 동주봉국장과 김영희 국장이 참가하였다.

공민실태료해사업의 첫 일정으로 15 일 오전 할빈지구협회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할빈지구협회 박일남회장, 박흥근 부회장, 백웅진할빈시지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김령사동지는 지난 3 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지방에 내려와 공민들에 대한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 지난해 발표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른 실천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 일환으로 공민들의 생활상 애로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공민들의 기본생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지구협회일군들과 함께 할빈지구협회에 대한 현황과 존재하는 문제들, 지구협회 사업방향에 대해 론의하였다.

16 일 오전 우리 일행과 박일남회장, 박흥근 부회장은 김승진할빈지구협회 사무장과 함께 사업토의를 하였다. 지구협회 일군들은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과 본부에서 우리 할빈지구협회 공민들을 위해 극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할빈지구협회 일군들이 응당 책임



감을 높이고 산하 지부공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나가자고 약속하였다.

이번에 진행한 공민가정방문과 공민들과의 만남에서 공민들은 령사동지와 본부일군들이 멀리에 살고있는 자기들까지 찾아준데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할빈시 공민들은 한평생 자기 직장에서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한 사람들인데 해외공민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될수 있도록 총령사관에서 우리 공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중국정부에 꼭 제기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할빈시지부공민들과 함께

우리 일행은 료해한 할빈지구공민실태를 주재국 해당 외사부분일군들과의 면담에서 제출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하였다.

총령사관과 총련합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 동포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진행한 이번 공민실태료해사업은 가는 곳마다 공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조선제재로 인해 우리 조선해외공민들의 기본생존까지 위기에 처한 공민사회에 불안정 요소들을 수습하는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될것이다.



오상시공민들과 함께



오상시 출입경관리부문일군들과 함께

심양시지부에서 료녕성 조선족로인련의회에서 진행한 전통민속활동에 참가

료녕성조선족로인련의회가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심양시 혼남구 혼하참서가두 만융촌로인협회활동실에서 20차 당대회 정신 학습보고회 및 문예공연과 전통민속오락활동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일군들인 한길수국장과 김영희국장, 권헌부국장이 심양시공민들과 함께 활동에 참가하였다.

16일 오전, 료녕성당학교 교수가 20차 당대회 정신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어 료녕성조선족로인련의회 회장 리석복이 개막사를 하고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회장 표성룡과 료녕성조선족련의회 회장 리홍광이 축사를 했다.

다음 각 로인협회와 예술단체에서 준비한 정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자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새중국도 없다>, <나와 나의 조국> 등 전통적인 혁명가요로 당과 조국, 고향에 대한 사



랑을 생동하게 표현했다.

조선의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의 장중한 노래소리가 남성합창으로 온 장내에 울려퍼지면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공연후 조선족전통민속놀이인 윷놀이, 화투, 장기 등 경기가 진행되였다.

동포사랑의 정을 안고 공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총련본부 일군들

재중총련본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총련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기 위하여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동포들을 위해 복무하는 사업기풍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속에서 5 월 15 일부터 19 일까지 길림지구협회 산하 조직인 장춘시지부와 길림시지부, 6 월 18 일부터 23 일까지 장백현, 백산시, 통화시지부들에 대한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지료해사업에 재중총련 본부의 동주봉국장, 김영희국장, 지순복 길림지구협회 사무장과 총령사관 담당령사외 1 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실태료해사업은 각 지부의 공민등록의 정확성, 조직강화, 공민권익과 공민들의 건강상태 및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제기되는 공민권익문제를 주재국에 제기하여 해결대책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다.

각 지부에 도착한 일행은 먼저 공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공민가정방문시마다 공민들은 감격에 목메여 일행의 손을 꼭 잡고 경애하는 원수님이 계시는 조국이 그립다고, 날로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고있다고 실토하였다.

올해 93 살인 장백현 김정희공민은 건강한 모습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60 청춘 90 환갑" 말씀을 받들고 오늘까지 조국을 그리며 살아왔다고 하였다.

일행이 방문한 가정들의 공민들과 자녀들은 가정방문을 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조국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폐부로 느꼈으며 마음에는 항상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날로 부강하는 조국을 그리며 살고있으며 그 그리움이 힘이 되여 오늘까지 건강하게 지내고있다고 하였다. 일행을 문가에 기대여 손을 저어 우리들을 바래주던 그들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각 지부공민들과의 모임에서 령사동지는 이번 료해사업의 목적은 해외공민들을 더 관심하시고 그들의 권익과 생활상편의를 잘 보장하여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서한과업집행을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각 지부공민들과의 모임에서 총련 본부일군들과 동행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세심하게 듣고 다른 지역들의 경험과 해결한 방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는 동시에 우리 함께 지혜를 합쳐 풀어나가자고 격려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부사업에서 지부장 역할의 중요성과 사업방법도, 사업방향에 대하여서도 알려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건화하여 제출하며 려권신청에 대한 강습도 진행하였다.

공민들은 총령사관과 총련본부에서 이렇게 공민들을 찾아준데 대하여 정말 고맙다고, 친정집사람들을 만난 마음이고 기쁨이라고 한결같이 좋아하였다. 또한 그들은 빨리 조국에 가고싶은 심정을 토로하면서 앞으로 총령사관과 총련본부에서 자주 산하 조직들을 찾아줄것을 바라며 이번 방문이 자기들에게는 더없는 힘과 기쁨으로 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일행은 공민들과의 집체모임에서 생활상 제기된 애로점과 겪고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료해종합하여 현지의 정부외사판공실 일군들과의 면담에서 제기하였으며 해결대책을 론의하는 등 최대한 공민들의 권익과 생활상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방문한 모든 지역의 외사판공실 일군들은 일행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명백한 리해를 표시하고 해결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확언하였으며 앞으로 조선공민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여 조중친선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장백현, 백산시, 통화시 지부장들과 공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총련의 유일무이한 실천강령으로 틀어쥐고 서한과업관철에 나선 총련일군들의 사업열의와 가식없는 방문을 통해 어머니조국의 다심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체험하였으며 총련본부와 오가는 따뜻한 정이 자기들



의 사업과 생활의 힘으로 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모든 지부장, 부지부장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동포들을 위한 멸사복무가 지부의 존재방식이고 근본사명으로 된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지부강화와 지부공민들을 위한 복무에 자기들의 사업을 지향시키며 순간의 주춤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서한과업관철에 투신하고 책임진 지부를 공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부로, 공민들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윤석열역도를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갈것이다

한 성 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윤석열역도가 얼마전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된 주요７개국수뇌자회의에 《초청》이라는 명분으로 낯짝을 들이밀었다.

회의기간 역도는 또다시 반공화국대결광신자, 미국의 충견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윤석열역도는 미일상전은 물론 참가국들과의 회담을 련이어 벌려놓고 그 무슨 《세계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며 심각한 위협》이니, 《국제사회가 더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등 우리 조국에 대한 악담을 마구 늘어놓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북공조》와 《긴밀한 협력》을 구걸하였다.

히로시마가 과연 어떤곳인가.

미국에 의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참화를 입은 피해지역이다.

미국은 히로시마의 핵참화를 우리 조국땅에서 재현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1950년대에 벌써 히로시마보다 더한 핵참화를 우리 조국에 들씌우려고 전략핵폭격기의 발동까지 걸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해마다 방대한 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들과 핵전쟁을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고있다.

이번 회의의 개막과 때를 같이하여《최종핵병기》인 핵전략잠수함을 의도적으로 로출시키면서 우리 조국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로골적인 위협과 압박을 가한 미국이다.

우리 조국이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마련한 핵보검이 없었다면 삼천리금수강산에는 벌써 이미전에 조선민족멸살의 《미국핵버섯》이 돋아났을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조국의 자위적핵보검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하지만 뼈속깊이 친미친일사대적근성에 물젖은 천하에 쓸개빠진 괴뢰 - 윤석열은 미국의 용납못할 핵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우리를 걸고들면서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댄것이다.

우리 조국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여기저기에 《긴밀한 협력》과 《대북공조》를 구걸한 윤석열괴뢰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특등매국노, 극악무도한 대결광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미일상전의 압력과 무시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안할짓 못할짓을 다함으로써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리익까지 해쳐 남조선의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추악하기 이를데 없고 가련스럽기 그지없는 미국의 충견-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무능한 대응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보, 경제적실리까지 다 내여준 벌거숭이외교이다》, 《실패와 참사로 검증된 윤석열의 무능한 외교실력》, 《〈국익〉과 안보,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될 망국적인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매국노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사대굴종과 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윤석열역도를 한시바삐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조국의 따사로운 사랑 평범한 우리 공민들에게도

장춘시지부장 지순복

우리 해외동포들을 극진히 사랑해주시며 크나큰 배려와 뜨거운 은정을 베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정신을 받들고 5 월 18 일부터 19 일까지 심양주재 조선 총령사관 재중담당 김동환령사동지를 비롯하여 해외동포사업국, 재중총련일군들은 우리 공민들이 살고있는 장춘시를 찾아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18일 저녁 장춘시 지부장인 저와 류선욱부지부장이 장춘에 찾아 온 령사동지를 비롯한 일군들을 역전에서 마중하였다.

19 일 오전 저를 비롯한 장춘시 조선해외공민들은 김령사동지와 본부일군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김령사동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이역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공민들에게 항상 마음을 쓰고계신다고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5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의 기본정신을 공민들에게 자세히 해설해주고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대조선고립압살책동과 경제제재속에서도 나라의 국방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해주었다. 때문에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해외공민들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말고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동시에 조직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장춘시공민들은 령사동지와 본부일군들과 이렇게 직접 마주앉아 자기들의 애로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이 평범한 우리 해외공민들에게도 잇닿아지게 하여준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특히 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장춘시에까지 내려와 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곤난과 애로들을 귀담아 들어주고 자세히 료해한 후 장춘시 외사판공실간부동지들과 교섭하여 해결방도를 모색하는 담당령사동지와 본부일군들의 력동적인 일본새를 직접 목격하면서 장춘시 공민들은 조선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두계절 풍경

황해남도 재령군농업경영위원회 부원 리일광



푸른 주단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농장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비좁은 모판에서 드넓은 벌판으로 이사를 왔다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으쓱으쓱 키돋움을 하는듯한 푸르른 벼모들, 그 속삭임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는것만 같아 보기에도 흐뭇한 우리의 농장벌이다.

그에 짝질세라 저 건너편에서는 훈풍에 춤추는 밀바다의 설레임소리가 끝없이 들려온다.

허리를 치게 빼곡이 들어찬 밀바다, 알알이 여물어 황금빛을 번쩍이는 밀바다는 벌써 가을을 소리쳐부르고있다.

한쪽에는 푸른 주단, 다른 한쪽에는 황금나락,

두계절 풍경이 함께 펼쳐진 내 조국의 전야,

이를 어찌 자연이 가져다준 혜택이라고만 하랴.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에서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어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개변시킬데 대한 뚜렷한 진로를 밝혀준 조선로동당.

한해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올해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는 위대한 우리 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를 뜻깊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해가는 이 시각, 어머니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에 떠받들려 펼쳐진 사회주의전야의 풍경이여서 이렇듯 우리의 가슴 설레이는것 아니랴.

오늘도 드넓은 전야를 바라보느라니 파아란 벼모들이, 시누런 밀이삭들이 춤을 추며 서로서로 약속하는듯싶다.

땅땅 여문 충실한 열매만을 맺어 만풍년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하여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고.

조선소년단창립 77 돐을 맞으며 《소년》호방사포 증정



후손만대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사회주의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로 빛내여갈 우리 소년단원들의 열렬한 애국심이 시대를 감동시키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참되게 걷고있는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7 돐을 맞으며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하였다.

소년단원들의 소박한 진정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가 알도록 크게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나이보다 애국의 마음이 먼저 자라난 새세대들의 기특한 소행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을 더해주고있다.

《소년》호방사포 증정모임이 6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평양시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동지, 청년동맹일군들, 인민군장병들, 전국소년단원들의 충성의 편지이어달리기참가자들을 비롯한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가 증정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소년》호의 명칭이 새겨진 무장장비들을 마련하여 조국보위초소에 보내주는것은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70 여년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소중한 전통이라고 언급하였다.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라난 학생소년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그는 오늘의 애국열의를 더욱 분발시켜 사회주의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이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학생소년들이 소년단기앞에서 다진 맹세를 항상 명심하고 풍부한 지식과 고상한 도덕, 건장한 체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소년》호방사포 증정서가 조선인민군 군관에게 전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평양제1중학교 단위원장 리룡준, 형제산구역 제산고급중학교 단위원장 김정예는 뜻깊은 6. 6

절을 맞으며 《소년》호로 불리우는 방사포들을 증정하게 된 자랑을 긍지높이 토로하였다.

인민군대가 강해야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굳건히 담보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 군대를 위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공부를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성스러운 조국보위초소에 설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인 백일은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일념을 안고 《소년》호방사포들을 마련한 온 나라 소년단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소년단원들의 애국의 마음과 절절한 당부가 어려있는 무장장비들을 보며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결의를 더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뜨거운 조국애와 서리발치는 적개심을 안고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증정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소년들의 열렬한 바래움속에 《소년》호방사포들이 인민군부대들을 향해 출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연료로 고질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하는데 성공

공화국의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나라의 내화물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고품질의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을 일떠세움으로써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장성을 담보하고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광산에서 생산하고있는 새로운 고질마그네샤크링카는 규산분함유량을 비롯한 모든 질지표가 세계적기준에 부합되는것으로 하여 그 수요는 지금 계속 높아가고있다.

금속공업, 세멘트공업부문의 여러 단위에서 도입한데 의하면 강철로들과 소성로들의 수명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의 연료조건으로는 고품질의 마그네샤크링카를 생산할수 없다는 관념을 깨버리고 내화물공업발전의 새 경지를 개척한것은 광산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의 주체화로선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받들어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산 모범으로 되며 우리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잠재력의 과시로 된다.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륭성의 시대, 번영의 시대

오늘 조국땅 방방곡곡에 펼쳐지고있는 변혁적실체들은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８차전원회의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천만인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날을 따라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모두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야말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는 륭성의 시대, 번영의 시대라는것을 폐부로 절감하고있다.

륭성의 시대, 번영의 시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놀라운 사변들로 수놓아지는 오늘의 세월을 두고 누구나 터치는 이 부름은 결코 그 어떤 책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받아안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다.

세인을 놀래우는 이 땅의 장업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생활의 갈피마다에 알게모르게 끝없이 흘러드는 따뜻한 사랑을 폐부로 절감하며 새겨안은 전인민적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할 헌신과 로고속에 끝없이 펼쳐지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들에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고 감격없이 대할수 없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아로새겨져있다.

전하고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그 위대한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수도 평양과 사회주의농촌들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를 놓고서도 명백히 이야기할수 있다.

오늘도 려명거리에 서보면 해솟는 룡남산에서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온다는 의미에서 거리이름을 《려명거리》로 명명해주시고 수십차에 걸쳐 무려 1 390여건에 달하는 려명거리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을 보아주시면서 려명거리를 건축미학적으로나 조형예술적으로 손색이 없는 21세기 미래형거리의 본보기로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오고 미래과학자거리에 들려보면 590여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감동깊은 사연이 되새겨진다. 송화거리에 가보면 1 000여건의 살림집설계형성안을 보아주신 이야기가 떠오르고 화



성거리를 바라보느라면 우리 인민들에게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 거리를 안겨주시려 무려 1 630여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이야기가 가슴을 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라새로운 설계도를 펼치시고 인민을 위한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에 떠받들려 수도의 곳곳에는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오늘도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며 희한하게 솟아난 이 땅의 새 거리, 진정 그것은 하나를 건설해도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열정과 걸출한 령도가 낳은 시대의 걸작품들이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건설지휘력량을 조직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농촌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전진공급할데 대한 문제와 시, 군마다 세멘트보관고를 건설하는 문제, 세멘트생산기지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할데 대한 문제, 농촌살림집건설용목재를 해결하는 문제, 도, 시, 군들에서 시, 군건설려단을 강력하게 꾸리고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빈틈없이 갖추며 자기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 리용하여 건설자재문제를 적극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 도들에 마감건재생산토대를 갖추는 문제를 비롯하여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적특색을 살린 농촌살림집형성안들이 해안, 벌방, 산간지역으로 갈라 각각 100가지씩 완성되여 살림집건설에 도입됨으로써 산간지대에는 산간지대맛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에는 그에 맞게 특색있는 살림집들이 건설되여 이 땅 그 어디서나 새집들이경사의 춤바다가 련일 펼쳐지게 되였다.





정녕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수도 평양이 달라지고 사회주의농촌이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원대한 리상을 내세우고 가장 거창한 투쟁으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해가는 영광의 세월,

이러한 격동의 세월을 우리 어찌 륭성의 시대, 번영의 시대라고 소리높이 구가하지 않을수 있으랴.

하기에 이 땅에 끝없이 늘어나는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들을 긍지높이 바라보며 온 나라 인민은 심장의 목소리를 터친다.

해솟는 아침처럼 찬란하고 꽃피는 봄날처럼 화창한 오늘의 시대야말로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위대한 **김정은**시대이라고.

그렇다.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우리 인민은 륭성의 시대, 번영의 시대와 더불어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강냉이재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전국콩재배기술강습 진행

강냉이재배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토론회와 전국콩재배기술강습이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산기술협회의 주최로 21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화상회의체계로 열린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농업부문에서 최근년간 지속되는 재해성이상기

후의 영향을 극복할수 있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를 찾는것과 함께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도입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강냉이재배기술》이라는 주제의 연구토론회에는 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평양농업대학을 비롯한 2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군들이 내놓은 가치있는 론문들과 방안들이 제출되였다.

참가자들은 고온과 다습조건에서 강냉이수정률을 높이고 천알질량을 늘이며 뿌리활성을 제고하여 태풍피해와 습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면서 알곡소출을 끌어올릴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교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천알질량을 늘이기 위한 몇가지 강냉이품종들의 수확시기결정에 대한 연구》, 《종자피복제처리에 의한 강냉이의 가물견딜성제고》를 비롯한 연구제안들이 농업실천에서 긴절히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콩비배관리의 과학화》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콩재배기술강습에서는 콩농사에서 재해성이상기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과 뒤그루콩농사에서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재배기술, 과학적인 비료주기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강의가 진행되고 다매체편집물시청이 있었다.

이번 연구토론회와 강습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인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드넓은 간석지에 규격포전을 펼쳐놓은 자랑찬 위훈

개간된 월도간석지의 1년분 포전정리과제를 5개월만에 끝낸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침땅을 늘여야 합니다.》

토지정리돌격대 평안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월도간석지내부망공사에서 중요한 1년분 포전정리과제를 5월말까지 결속하였다.

이 성과는 간석지개간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당결정을 무조건, 철

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선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비상한 실천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에게는 조건타발이 있을수 없다

지난 1월초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받아안은 려단일군들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길수록 많은 공사를 올해말까지 끝내기로 계획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일군들은 상반년안으로 공사를 끝낼것을 결심하고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토의에 붙이였다.

공사기일을 앞당긴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월도지구는 홍건도간석지나 곽산간석지에 비해 공사조건이 몹시 불리하였던것이다. 대부분의 간석지가 불도젤이 작업하기 힘든 갈밭이거나 바다물면과 수평인 습지였다.

어려움은 거기에만 있지 않았다. 려단의 기본력량이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에 동원되다보니 현지에 남아있는 불도젤의 대수도 많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런데다가 많은 개고들을 메워야 하는데 여기에 요구되는 토량만 해도 수만㎥나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상반년안으로 공사를 끝낼것을 론의한다는것자체가 사실상 놀랄만한 일이였다.

김찬겸려단장은 방도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에서 절절히 말하였다.

조건만 론한다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맡은 공사의 완공이 왜 당중앙전원회의 결정의 한조항으로 설정되였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당결정을 놓고 조건타발이나 흥정이란 있을수 없다.

누구나 이제 전개될 당결정관철투쟁에서 자기들이 수행해야 할 몫들을 생각하고 각오를 더 든든히 다지였다.

당세포총회들에서 당원들모두가 상반년도까지 포전정리계획을 수행할것을 결의해나섰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이 련이어 쏟아져나왔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보다 한달 앞당겨 공사가 시작되였다. 그자체가 종전에는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용단이였다.

《집행》, 이 두 글자만을 새기자

돌격대원들의 일본새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누구나 당결정집행을 위해 지난 시기보다 몇곱절 더 머리를 썼으며 두주먹을 부르쥐고 뛰여다녔다. 식사를 하면서까지도 당결정집행날자를 외웠다.

급선무로 나선것은 개간할 간석지에 논구역과 도로, 물길구간을 표식하는 기발을 꽂는것이였다. 그래야 공사장에 불도젤들을 빨리 들이밀수 있었다. 그런데 감탕속에는 아직 살얼음이 있었다.

려단참모장 홍창성동무와 각 대대의 시공참모들이 표식기를 들고 나섰다.

차디찬 바다바람이 몰아치고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감탕판에서 발에 동상을 입을수도 있다는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시공표식기를 꽂는가에 따라 불도젤들의 진입시간이 결정되였다.

당결정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앞에 무엇이 가로막아나서든 오직 직선으로!

이들이 찍어간 발자욱의 깊이는 돌격대원들만이 헤아릴수 있었다. 맨몸으로도 걷기 힘든 감탕길을 그들은 하루 수십리씩 걸으며 한주일만에 2 000개의 시공표식기를 드넓은 공사장 곳곳에 꽂았다.

개척자들이 간난신고로 걸은 발자취를 따라 불도젤들이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포전정리를 시작하였다.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도젤을 몰아가는 운전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난관은 개고와 맞다드는것이였다. 개고에 잘못 들어서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었다.

철산군대대의 불도젤들이 11구역의 포전정리를 끝내고 14구역의 포전으로 넘어갈 때였다.

너비가 20m 이상 되는 개고가 나타났다. 이것을 피하여 다음포전으로 가자면 30리나 에돌아야 하였다.

돌격대원들이 손맥을 놓고있을 때 대대장 최원일동무가 이만한 난관에 주저앉으면 당결정을 어떻게 관철하겠는가, 한번 대담하게 개고를 넘어가보자고 그들을 불러일으켰다.개고극복에 필요한 통나무를 날라오고 불도젤이 넘어가야 할 구간에 흙을 가득 채워넣었다.그리고 통나무를 여러대씩 묶어 불도젤의 무한궤도밑에 깔았다.

불도젤들이 발동소리를 요란히 울리며 한치한치 전진하였다.

첫 불도젤이 통과하고 두번째 불도젤이 넘어갈 때였다.무른 감탕층이다보니 불도젤이 감탕속으로 빠지기 시작하였다.잠간사이에 육중한 불도젤의 삽날까지 감탕속에 묻히였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찰나 강철민, 리정철동무들이 재빨리 앞서 건너간 불도젤에 견인바줄을 걸자 리명철, 최광철동무들이 뒤따라 감탕속에 뛰여들어 점점 빠져들어가고있는 불도젤의 삽날에 쇠바줄을 걸었다.

사람과 불도젤이 한덩어리가 되여 용을 썼다. 돌격대원들의 충천한 웨침소리가 불도젤의 발동소리를 눌렀다.악전고투끝에 마침내 감탕에 빠졌던 불도젤은 구원되였다.다른 불도젤들도 련이어 건너왔다.

이런 투쟁기풍은 정주시대대에서도 발휘되였다.

대대가 맡은 구역은 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대부분이 습지대인데다가 비가 내리면 불도젤이 작업을 할수 없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물이 빠지고 감이 들어야 불도젤이 가동할수 있었다.감이 저절로 들때까지 기다리겠는가 아니면 물도랑을 째고 땅을 건조시키면서라도 전진을 계속하겠는가.

돌격대원들은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

당원들이 앞장선 가운데 돌격대원들은 낮에는 불도젤을 몰고 새벽이나 밤에는 물도랑을 째면서 공사속도를 높이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기운차게 전진하던 불도젤이 동음을 멈추었다.크랑크축이 부러졌던것이다.당장 용착할데도 없었다.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타들었다.

매일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할것을 당결정으로 채택한 우리들이 아닌가.이것을 완벽하게 집행하지 못한 하루가 남긴 공백은 그 무엇으로 써도 메꿀수 없다.…

어느한 군에 필요한 부속품예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대정치지도원 김정철동무는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어떻게 알았는지 박성철, 백일현동무들이 뒤따라왔다.그들은 밤새 ２００리길을 달려가 크랑크축을 가져왔다.

불도젤의 동음은 다시 기세차게 울려퍼졌다.이 기세로 대대는 제일먼저 포전정리를 끝내였다.

《이제는 당세포결정서에 〈집행함〉이라고 써넣을수 있게 되였구만.》

이런 말을 주고받는 돌격대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있었다.

정녕 월도간석지내부망공사장의 하루하루, 한달한달이 이렇게 당결정집행의 날과 달로 흘렀다.당에 무한히 충직한 당원들, 돌격대원들에 의하여 려단이 내세운 목표는 수행되였다.

이들이 용감한 투쟁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충성다해 받들어갈 불같은 열정 안고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 로동신문



풍만한 정서, 아름다운 생활

노래소리 드높은 일터

은산군피복공장의 작업현장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온다.

학생교복생산으로 바쁜 속에서도 이들은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으면서 생활을 락천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이 출선 앞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노래보급사업도 진행하니 종업원들 누구나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부르고있다.

노래를 투쟁과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삼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온 나날에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공장애와 함께 래일에 대한 락관이 깊이 자리잡게 되였으며 집단의 단결력도 더욱 강해지게 되였다.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노래가 없는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투쟁의 열정도 나올수 없다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생산적앙양으로 들끓는 벅찬 현실도 좋지만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와 더불어 더욱 신심에 넘쳐 마중해가는 공장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노래가 있기에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아름답고 우리의 전진은 그토록 기세차다는것을 은산군피복공장의 군중문화예술활동이 웅변적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인민반에 넘치는 꽃향기

서성구역 중신동 83인민반은 거의 모든 세대가 꽃을 가꾸고있다.

아빠트의 베란다마다에서는 계절마다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나고 선인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장구내를 아름답게 꾸려가고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종업원들

식물이 키돋움하며 자라 보는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이웃들사이에 좋은 꽃이 생기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꽃가꾸기와 관련한 경험들을 교환하기도 한다.

꽃가꾸기에서 모범인 김영애로인의 집은 언제나 그윽한 꽃향기속에 싸여있으며 꽃재배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웃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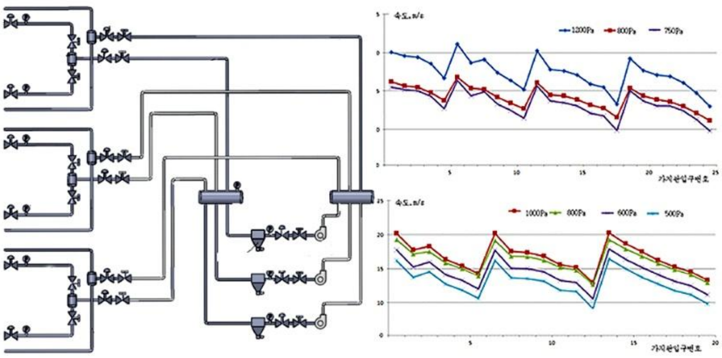
가정에서의 꽃가꾸기에 대한 경험과 상식이 부족하여 애를 먹던 사람들도 로인의 《강의》를 받고는 누구나가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열의를 안고 이 집을 나선다고 한다.

로인은 자식들에게도 꽃가꾸기방법을 알려주어 그들이 가슴속에 애국심과 향토애를 지니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이웃들도 경쟁적으로 꽃을 가꾸며 생활을 문화정서적으로 꾸려나가고있다.

생활에 대한 사랑,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어려있는 꽃송이들마다에서 진한 향기가 풍겨온다.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꽃가꾸기와 더불어 이곳 인민반에서는 이웃들사이의 화목이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로동신문



에네르기절약형제진환기체계확립

열공학부연구사 홍상룡선생 비롯한 연구집단이 어느한 목재가공공장에 작업장의 무진화를 실현할수있는 에네르기절약형의 재순환식 제진환기체계를 확립하고 그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재순환식 제진환기체계는 목재가공설비들의 가동률에 따라 송풍기와 제진기의 대수를 조종하여 전력소비를 최소로 줄일수있다. 그들은 공기수송관에서 톱밥의 침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조절변의 합리적인 작업정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진기에서 임풀스계통의 분사시간과 정지시간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였다. 하여 송풍기와 제진기의 작업대수를 줄이고 자루려과기가 자기의 수명을 다하게 함으로써 제진환기체계의 작업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원가를 낮추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

나는 로씨야련방 국경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로씨야련방정부 그리고 친선적인 로씨야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강인하고 슬기로운 로씨야인민은 장구한 기간 광활한 대지우에 깊이 뿌리박고 자랑스러운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면서 긍지높은 발전행로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나라의 주권과 안전,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로씨야인민의 투쟁은 당신의 정확한 결심과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로씨야인민은 자기에게 고유한 전통인 승리의 력사를 계속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로씨야의 주권적권리와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총매진하고있는 귀국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습니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조로친선은 우리 두 나라의 소중한 전략적자산이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린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나는 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에 부응하여 당신과 굳게 손잡고 조로사이의 전략적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용의를 확언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과 친선적인 로씨야인민에게 언제나 번영과 발전,승리만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2(2023)년 6월 12일 평 양(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력사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며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에 대한 칭송의 마음은 외국의 벗들이 보내오는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뜨겁게 어려있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서기국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따라 승리의 려정을 이어가고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장성강화된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것이다.

벨라루씨 위쩹스크주체교육학협회 책임자,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필리핀조선련대성 및 친선협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령도실천으로 나라의 국력과 지위를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파키스탄 라호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자주적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여 주체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이 더 높이 떨쳐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련대성그루빠 책임자,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김정일**장군 뻬루친목회 위원장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김정은**각하와 같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는 위인은 없다,**김정은**각하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찬란한 승리의 기치이시다고 강조하였다.(끝)

김덕훈동지 인디아공화국 수상에게 위문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김덕훈동지는 인디아의 오디샤주에서 일어난 렬차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나렌드라 모디수상에게 6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전문은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하면서 조선인민은 어려운 이 시각 인디아인민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으며 인디아정부가 하루빨리 이번 사고의 후과를 가시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기를 확신한다고 지적하였다.(끝)

우리 나라 외무상 뛰르끼예공화국 외무상에게 축전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뛰르끼예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된 하깐 피단에게 10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의 새로운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끝)

우리 나라 외무상 필리핀공화국 외무상에게 축전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필리핀독립 125돐에 즈음하여 루이스 엔리께 아우스트리아 곤잘레즈 마날로 외무상에게 12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끝)

우리 나라 외무상 로씨야련방 외무상에게 축전

우리 나라 외무상 최선희동지는 로씨야의 날에 즈음하여 쎄르게이 윅또로비치 라브로브 외무상에게 12일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로씨야련방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평등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친선과 선린의 전통으로 굳건히 이어져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관계는 력사적인 울라지보스또크조로수뇌상봉에 의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서의 호상협력과 지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고 축전은 강조하였다.

축전은 조로친선관계발전을 더욱 추동하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두 나라 외교부문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이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끝)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외무성 부상 임천일동지,대외경제성 부상 박정웅동지,외교단사업국 국장 김익성동지,조선로씨야친선의원단 위원장인 보건성 의학연구원 원장 리철동지,관계부문 일군들과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끝)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남부수단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4일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쌀바 키이르 마야르디트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심동국 특명전권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각하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그는 남부수단은 조선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하여 쌍무친선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끝)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국경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12일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해방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은 해방탑에 화환을 진정한 다음 쏘련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이날 로씨야대사관 성원들은 사동구역에 있는 쏘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끝)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권리를 단독안건으로 취급하는 회의를 벌려놓음으로써 개별적국가의 정치적부속물로 작동하는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다시 남기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직되여 지금까지 9,000여차의 공식회의가 진행되였지만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인 침략과 전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권국가의 우주개발권리를 놓고 모여앉은것은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심각한 외곡이며 기구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의식적인 태공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세계적으로 각이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5,000여개의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무수한 자리길을 새기고있고 지어 민간기업들까지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여들고있는것이 오늘의 보편적인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유독 유엔의 당당한 일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발사만을 론의하는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가 의연 지속되고있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이 하자는대로 걸핏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행사를 문제시하는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간섭적인 주권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상정시킨것 자체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유린이며 침해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지역의 변화된 안보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10여년전에 조작된 불법무도하고 불공정한 대조선《제재결의》조항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발전권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려드는것은 지역의 세력구도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정의 구조적파괴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만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금과 같은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대조선행태를 계속 고집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될 심각한 정세불안정을 만회할 능력이 있는지,지역국가들의 안전을 담보할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책임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규탄소동에 합세한 일부 나라들은 지금 근거없이 미국의 장단에 무조건적으로 떨쳐나서서 춤을 추고있는데 참으로 가관

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나라와 안전리익상 대립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으며 더우기 우리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이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무작정 따르는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이고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상기시키고싶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한 응당한 대응조치이며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행사이다.

지금으로부터 17 년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첫 대조선《제재결의》가 조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100 여일동안 우리는 언제한번 불법적인 《제재결의》들을 인정해본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절대불변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행사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본능적인 반사적행위에 상관없이 군사정찰위성발사를 포함한 주권국가의 모든 합법적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의 《정치적도구》가 고안해내는 결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력한 자위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루감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였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강력대응할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없이 해나갈것이다.

주체 112(2023)년 6월 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계속되는 적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행위에 강경한 경고립장을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반공화국적대적군사훈련을 련일 벌려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5 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하여 강경한 경고립장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있다. 훈련은 지난 5 월 25 일과 6 월 2 일,7 일,12 일에 이어 오늘까지 무려 5 차례나 감행되였다.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

우리 군대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군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어떤 형태의 시위성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것이다.(끝)

일제의 야수성을 고발하는 6. 10 만세시위투쟁

오늘은 6. 10 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97 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세대도 바뀌였다. 하지만 우리는 6. 10 만세시위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발광한 일제의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3. 1 인민봉기이후 식민지통치체제의 위기를 느낀 일제는 종래의《무단통치》의 총검우에《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 몇명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 하였다. 《민의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조선사람과 일본인사이에 차별이 없는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그 명칭만 바뀌였을뿐 총독정치의 진면모는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통치수법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해진것뿐이였다.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여 각계층 근로대중의 반일투쟁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1926 년 6 월 10 일 마침내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망국의 설음과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였다. 시위투쟁은 삽시에 전국각지로 확대되였으며 여기에 각계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세차게 벌어진 6. 10 만세시위투쟁은 빼앗긴 조국강토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이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기개에 겁을 먹은 일제는 확대되는 시위투쟁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다. 시위투쟁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각 도의 경찰대와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망을 펴는 한편 인천에 정박하고있던 4 척의 순양함 해병들을 《의장병》이라는 명목밑에 상륙시켜 대기시켜놓았다. 또한 수많은 군대로 경성(서울)을 포위하였고 4 000 여명의 경찰로 시내를 거미줄처럼 뒤덮었다. 그와 함께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발동하여 수백명을 체포하였다.

시위투쟁이 일어난 당일에는 중무장한 군경들을 내몰아 160 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200 여명을 체포구금하였다.

일제의 야수적만행에 의해 조국강토는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물들여졌다.

6. 10 만세시위투쟁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류혈적인 탄압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놈들이 저지른 범죄들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것이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 《조선사람들은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키면 족하다.》,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조선민족말살론이였으며 식민지통치의 기본핵이였다.

일제는 조선강점 전 기간 전체 조선민족을 말살할 흉계밑에 대중적학살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만행은 중일전쟁발발이후 더욱 로골화되였다. 무려 840 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일제는

《지하대본영》과 비밀군사기지건설에 강제로 동원하였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구실밑에 집단학살하거나 세균무기인체실험대상으로 삼는 극악한 살인범죄도 저질렀다.

일제의 만행중에서 20 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삼은것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상처를 남긴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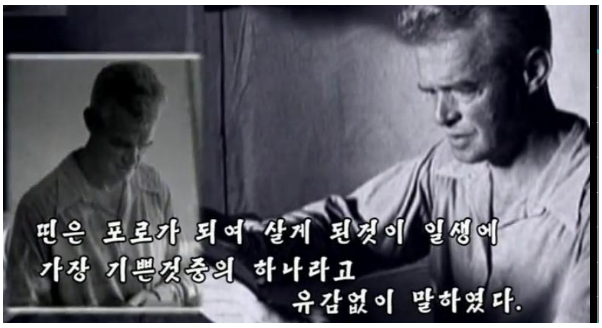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오늘까지지도 일제에 의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를 부정하면서 과거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무마될수 없고 지워질수도 없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피맺힌 원한을 남긴 일제의 특대형반인륜죄악의 대가를 철저히 받아내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류경

미군24사 사단장 띤



1950 년 7 월 5 일, 수많은 전투를 통해 <<상승>>을 뽐내여 왔다는 미군24 보병사단의 <<스미스>>특공대가 조선인민군대의 질풍같은 공격에 하루아침에 완전괴멸되였다.

스미스특공대가 괴멸된후 사단장 띤은 사단산하 34련대를 천안선계선에 배치하고 2중3중의 지뢰밭을 형성하였다. 7월8일 새벽 인민군대의 6 대의 땅크가 지뢰밭을 극복하고 천안시내를 돌진하였다. 이날 34 련대는 련대장이하 장교는 한명도 살아 남지 못하고 대대는 700여명 가운데서 70%이상이 무주고혼이 되고 나머지는 포로, 행방불명이 되였다.

우리 인민군의 용감성을 뼈저리게 느낀 띤은 기자들에게 조선인민군을 과소평가하였다고 말하였다.

금강을 비롯한 유리한 계선을 리용해서 대전을 중심으로 병력을 4 중으로 배치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금강방어선도 인민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띤은 너무도 몰랐다. 그것은 백두산의 명장으로 일본침략자들을 타승한 김일성장군이 지휘하시고 자기의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가슴불태우던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힘을 몰랐다. 띤은 대전남쪽의 방어에는 그리 관심을 돌리지않아 대전을 완전히 포위한 7월19일 구봉산에서 인민군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믿지않았다.

이튿날 새벽, 류경수 105 땅크사단의 두대의 땅크선견대가 습격조원들과 함께 대전시에 돌입하여 화점들과 진지들 연유창고와 지휘소들을 무자비하게 들부셔놓았다. 띤은 몇개 대대규모의 땅크가 쳐들어오는줄 알았는데 두대의 땅크가 시내를 죽가마 휘젓듯하는 인민군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성과 용감성에 완전히 혼이 빠졌다. 아연실색하였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은 포병화력의 엄호밑에 대전시 북쪽과 서북쪽 및 서쪽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넘어가 순식간에 적의 방어진지들을 점령하고 시가전을 벌리면서 적들을 소멸하였다. 인민군대의 포위망이 조여들자 적들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고 전투서렬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난생처음 전쟁이란 이렇게 무서운줄 알았다, 공개무전을 날려 땅크를 보내라고 하였다. 대전이 포위되면서 사단은 풍지박산이 되고 저항하는 자들은 죽었다. 공포에 질려 황급히 경비용트럭을 타고 남으로 도주하다가 인민군포탄에

맞아 경비용트럭이 전복되면서 운전수는 그자리에서 즉사하고 띤도 의식을 잃었는데 한참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호위선전원 20 여명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 띤은 운전수 의복으로 갈아입으면서 휴대용무전기. 사진기. 손전지들을 던지고 혼자서 남으로 남으로 도주하였다. 길을 잘못들어 벼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을 잘못먹어 바지에 설사도 하면서 뒤를 돌아볼새도 없이 그냥 전쟁에서 멀리 달아나기만 하였다. 완전히 넋이 빠진 미군장성 띤이였다

낮에는 산에 은신하여 있다가 밤에만 도로를 따라 진안에서 배가 고파 어둠을 리용하여 감자밭에 내려가다 농민에게 발각되여 인민군에게 포로되였다.

제혼자 살겠다고 병사복을 입고 36 일동안 비참한 방랑생활을 하다가 전라북도 진안군 군상리에서 인민군병사에게 포로된 사단장 띤의 허우대가 큰 몰골은 몹시 초라하였다.

8 월 25 일, 미 24 보병사단장 띤이라고 초보적으로 확정된 후 전주교화소에 호송되였다. 이튿날 전주교화소에서 예심이 진행되였다. 윌리암 에프 띤소장은 1899 년 8 월 1 일 미국에서 출생하여 캘리포니아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미륙군제 44 보병사단사단장, 제 7 보병사단사단장, 남조선군정청군정장관, 미군제 8 군참모장을 력임하면서 포로되기전까지 미 24 보병사단장을 하였다. 남조선에서 군정장관을 하면서 일본통치구조를 복구하고 리승만괴뢰정권의 북침전쟁을 위해 2만 5000 명의 경찰을 3 만 5000 명으로 증강하고 미제를 반대하는 애국적인 인민항쟁을 학살탄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김규식, 김구등이 평양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가하고 남조선에 돌아오자 점차 검거투옥시켰다.

예심에서 띤은 대전방어선은 삽시에 돌파당하였는데 조선인민군대지휘관들의 높은 지휘능력에 탄복한다고 하면서 대전전투조직은 조선사람이 조직한 작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무기에 비한 정신적 힘을 느끼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처음으로 전쟁이 무자비하고 무서운것임을 몸서리치게 절감했다고 고백하는 띤은 포로가 되여 살게된것이 일생에게 가장 기쁜것중의 하나라고 유감없이 말하면서 일본말로 죽이지 말아 주십시요라고 애걸하였다. 미군은 군대가 아니다. 다만 딸라에 몸을 팔리운 총을 쥔 강도들이다.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대전이 인민군의 손에 들어가고 띤이 체포되자 특공대를 파견하여 구출작전을 벌렸다. 파견된 자들이 모두 인민군에 죽자 차라리 전투에서 죽었으면하였다. 당시 미극동군사령은 미국이 자랑하는 상승사단장이 포로되면 미국의 수치였고 미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반공격하여 북진하여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여 띤이 살아있을만한 곳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였다.

대전주변을 폭격하였다. 띤의 호송도중 폭격으로 하마트면 띤을 죽일번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띤의 심문을 공개하자 미제는 그가 생활하고있을 평양시교외의 포로수용소를 대대적으로 폭격하였다.

그리하여 띤과 미군포로들을 북부에 이송하였다.

띤은 포로생활기간 면회에 오겠다는 처에게 <<당신을 몹시 보고싶지만 오지말았으면 하오, 우리 미군이 여기 조선의 강토에 숱한 세균폭탄을 투하하였소, 너무도 강한 조선앞에 아마 미국이 미쳐버린것 같소,이제 내가 있는 여기 수용소에 미군이 세균폭탄을 떨구면 난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고통속에서 죽을것이요, 정말 무섭소, 난 미쳐버릴것 같소. 미국은 왜 야만적인지 난 리해할수 없소, 하기는 나도 한때 조선사람에게 야만이였소, 난 나자신을 저주하오, 미국도 저주하오>>라고 편지하였다.

미제는 무차별 폭격으로 도시와 마을을 페허로 만들었다.

그러나 미군제 8 군사령 살인장군 워커는 죽음을 면치못하였다.

1953 년 7 월 27 일 띤은 라지오를 통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된지알았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였던 미제강도들의 무모한 계획은 마침내 파탄되고말았다.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쏘련과 중국을 침범하려던 그들의 어리석은 계획은 모래우의 루각과도 같이 무너지고 말았다. 조선정전은 우리의 힘의 강대함을 보여주었다. <조

선인민군이 이렇게 나가면 10 년안에 세계 1 등급의 군대가 될것입니다.>띤은 결코 앞을 내다볼줄아는 현명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산 체험으로 우리군대의 강대성을 처절하게 절감한 미군의 장성이였다.

1953년 9월초, 예심에서 자기의 죄를 솔직히 자백한 띤이 미국에 돌아가면 조선인민 앞에 죄진 미국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띤을 살려보내줄것을 요청하여 온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공화국정부는 그를 관대히 용서하여 미국으로 추방하였다.

포로생활을 마치고 서울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간 띤과 미국은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정신적허약자에게는 강자이지만 정신적 강자에게는 피할수없는 약자라는것을 알았다. 띤은 미국에 돌아가서 <조선전쟁, 포로되지않은 내막> 책을 써서 출판하고 수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실토하였다.

미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조선을 당할수없다는것을! /조선의오늘

총련 제 13 차 중앙어머니대회 도꾜에서 진행

총련 제 13 차 중앙어머니대회가 19 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 서한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녀성운동을 애국애족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민족교육고수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녀성동맹일군들과 열성자들, 새세대 어머니들을 녀성동맹의 핵심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되였다.

《참된 어머니사랑은 민족교육으로부터》, 《사랑하는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들로 진행된 대회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와 녀성동맹본부 일군들, 동포녀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회를 사회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녀성들을 자녀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 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들여 가꾸는 원예사로 높이 내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자녀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자면 이국의 모진 칼바람을 이겨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며 이 성스러운 애국위업은 녀성동맹과 동포녀성들이 앞장에 설 때에만 승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녀성동맹이 본부위원장회의들과 강습을 통하여 일군들이 사상적일치, 행동상일치를 이룩하며 모든 녀성동맹본부들에서 전형창조운동의 요구대로 학생, 원아인입사업과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 비전임열성자들과 새세대 어머니들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말하였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이 민족교육고수를 위한 사업에 모든 힘,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여 새로운 긍정, 새로운 성과를 창조한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동포녀성들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자녀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하며 그 첫 스승인 어머니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가 아이들에게 꿋꿋이 이어질 때에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마련되고 그것은 곧 민족교육을 보금자리로 하여 실현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민족교육의 진가와 민족교육을 기어이 지켜나갈 동포어머니들의

굳은 결심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동포녀성들이 이국땅에 휘몰아치는 모진 광풍과 걸음마다 앞을 막아서는 가시덤불을 박차고 열화같은 조국애와 민족애로 자녀교육과 민족교육지원사업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서와 교육권옹호투쟁, 학생인입사업, 일본인민들과의 교류활동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강연도 진행되였다.

강연자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길에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축하공연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간또대지진조선인학살 100년
-적극적으로전개되는각단체의실행위원회사업-



올해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본 각지에서는 추모행사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얼마전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학살희생자의 추도와 책임추궁의 행동》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 제3차 회의가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습회와 집회소집을 토의하였으며 토론들이 있었다.

평화연단의 후지모또 야스히로 공동대표는 《많은 일본시민들과 함께 학살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정부에 책임을 추궁해나가겠다.》고 하면서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단체, 개별적인사들과 련대하여 이 운동을 보다 광범히 전개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지난 1월 조선과 일본의 여러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로 발족된 실행위원회는 일본사회에 만연된 식민주의적사고의 극복과 차별철폐, 조선인대학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진상조

사, 재일조선인들과의 련대를 활동방향으로 삼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제 4 차 실행위원회는 7 월 18 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간또대지진 조선인학살 100 년-학살희생자의 추도와 책임추궁의 행동》실행위원회 제 3 차 회의 한편 지난 5 월 도꾜에서 재일조선인대학생들과 일본대학생들의 참가하에 《조선인학살의 력사를 기억하며 조선인차별에 반대하는 일대행동 실행위원회》가 발족되였다.

실행위원회는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 소속된 재일조선인대학생들과 일본대학생들로 구성되여있다.

실행위원회는 간또대지진조선인학살 100돐이 되는 올해에 일본정부에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옳바른 력사를 알려주며 오늘날 일본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죄악에 찬 력사부정의 풍조를 반대, 규탄하는 사회적여론을 조성하는 투쟁을 통해 많은 일본대학생들과 교원들을 망라하고 그들과의 련대를 강화하는것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실행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일본의 과거죄악과 민족차별을 보여주는 기록영화가 상영되였으며 간또대지진 당시에 감행된 스미다구지역의 조선인학살현장에 대한 현장답사가 진행되였다.

또한 오늘 8 월 진행하게 될 집회와 시위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 하늘아래 살수 없다!》,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괴뢰 전지역에서 로동계가 역도심판투쟁 전개, 3 만 5, 000 여명의 로동자 참가

괴뢰 전지역에서 5 월 31 일 로동계가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투쟁을 일제히 전개하였다.

서울과 대전,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지역의 민주로총의 산하 단체 로동자 3만 5, 000여명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민주로총 건설로조, 금속로조 등 14 개 산별로조는 서울의 여러 곳에서 사전집회들을 가지고 윤석열역도심판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집회장소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파쑈경찰은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위행진을 가로막았다.

시위행진에 이어 세종대로일대에서 2 만여명의 로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역도퇴진, 로동탄압중지를 위한 결의집회가 있었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윤석열역도가 전두환의 폭력과 탄압 및 독재, 리명박의 친기업, 반로동정책, 박근혜의 무능과 부패, 독선 등과 비교해도 어느것하나 빠지지 않는 철저하게 못된자라고 성토하였다.

금속로조 위원장은 《윤석열정권 1 년만에 친재벌, 반로동, 검찰독재, 공안통치, 민주, 민생, 평화파괴로 재벌천국, 로동지옥 세상에서 살고있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로동자, 민중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화물련대, 건설로조를 탄압한 윤석열정권의 칼날이 금속로조로 향하고있다.》, 《한 하늘아래 살수 없다면 끝장내야 한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 금속로조는 하반기 전체 민중의 대항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총투쟁에 나설것이다.》고 하면서 역도퇴진투쟁을 선언하였다.

이어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굴종, 망언외교로 이 땅을 팔아먹으러 다니더니 이제는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나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며 탄압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주로총이 희망이 되여 투쟁하자,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늘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양회동렬사를 죽이고 로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이다, 우리의 파업은 로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처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실천이고 정의로운 투쟁이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싸움이 길어질수도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탄압에 직면할수도 있다,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할수도 있을것이다, 한번 투쟁하고 중단하는 일회성투쟁이 아니라 분노하고 슬퍼하는것에 멈추지 않고 로동자, 서민을 죽이는 윤석열《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더 크고 더 당당하고 더 뜨겁게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양회동렬사의 념원을 실현하고 로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로조의 투쟁은 윤석열을 끝장낼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금속로동자들의 오늘의 투쟁이 불씨가 되여 들불로 번진다면 윤석열을 반드시 끝장낼수 있다, 윤석열《정권》의 로동개악, 로동조합탄압, 검찰독재, 공안탄압조성, 친자본행보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도퇴진투쟁에 앞장설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윤석열의 《대통령》당선을 증명하는 문건을 찢는 의식도 진행하였다.

이날저녁 《양회동렬사투쟁 로동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행동》의 주최로 양회동렬사추모초불집회가 열릴 예정이였지만 파쑈경찰은 80 여개의 기동대를 내몰아 강제해산시켰다.

참가자들은 《로조 여러분, 지쳐서는 안된다. 놈들이 노리고있는 수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된다.》, 《우리의 싸움은 정의다.》, 《우리는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고 말것이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에 굴복하지 말고 싸우자.》고 하면서 파쑈경찰들의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언론들은 《윤석열퇴진, 민주로총 3 만 5 천함성… 경찰, 집회불법화시도》, 《한 하늘아래 살수 없다!》,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등의 제목으로 《로동계가 5. 31 총파업을 사수하고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천막은 빼앗겼지만 추모의 초불은 더욱 번져나갔다.》, 《사태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참석하며 집회장은 발디딜 틈도 없었다.》고 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윤석열정권퇴진투쟁 공동기구》결성을 제안하는 모임 진행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과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녀성농민회총련합》, 《빈민해방실천련대》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정권퇴진투쟁 공동기구》결성을 제안하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단체대표자들은 《검찰독재정권, 반로동정권, 반민중정권, 반민주주의정권, 반평화정권과 한하늘아래에서 살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다.》, 《로동자, 농민, 빈민이 앞장서는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을 범국민적항쟁으로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오는 27 일 대표자회의방식으로 《윤석열정권퇴진투쟁 제단체 대표자회의 및 공동기구결성》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윤석열정권 1 년, 그 누구보다 가장 고통받고 탄압받아온 사람들이 로동자, 농민, 도시빈민이였다. 로조혐오와 로조탄압으로 양회동렬사가 사망한 가운데 윤정권은 <로동 3 권>전면부정, 로동시간개악을 비롯한 반로동정책추진 예고, <량곡관리법>거부로 쌀값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절규 외면,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 말살정책의 로골화, <빈해련>간부 6 명 전격 구속, 유일한 생계수단인 로점말살정책강화 등 빠른 속도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사회가 되여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 곳도 되돌아 갈 길도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이자 가장 고통받는 로동자, 농민, 빈민들은 윤석열정권퇴진에 모든것을 걸고 투쟁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자들은 《윤석열정권의 친미, 친일일변도외교와 조선반도전쟁불사정책으로 인해 민중생존이 직접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민중의 비판과 저항을 물리적탄압과 공안통치, 언론장악으로 누르고있다.》,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는 이제 저항과 항쟁의 도화선이 되고있다.》고 하면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윤석열퇴진을 이야기하고있다. 로동자, 농민, 빈민들은 목숨이 달린 문제여서 아무리 탄압을 해도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길수밖에 없다.》,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길때까지 투쟁하겠다. 최전선에서 우리의 생명권을 걸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자신들의 결의를 피력하였다.



정률성의 노래 할빈의 거리에서 울려퍼진다

"20 차 당대회 관철 '군가 우렁찬 거리'" 할빈시 주제홍보전시행사 가동의식 개최

6 월 6 일, 흑룡강성문화관광청, 할빈시문화광전관광국, 인민음악가정률성기념관이 공동주최한 "20 차 당대회

관철 '군가 우렁찬 거리'" 할빈시 주제홍보전시 행사 가동의식이 할빈시 도리구 안승가(인민음악가정률성기념관)에서 개최되였다.

흑룡강성의 "20 차 당대회 관철 혁명문화거리" 홍보전시활동의 일환인 이 행사는 성내 혁명문물의 보호리용 성과를 선양하고 현지의 당의 이야기, 혁명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흑룡강성과 할빈시 문화관광부서의 관련 지도자와 성, 시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날 행사에 참가하였다.



'군가 우렁찬 거리' 홍보전시행사는 12 월말까지 지속된다. 전시구역에 '태양으로 나아가다–인민음악가 정률성의 생애 사적전' 홍보사진과 문자가 전시되여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및 국가건설 등 부동한 력사시기에 창작된 정률성의 우수한 음악작품을 중점적으로보여주게 된다. 이와 동시에 8.1 건군절 등 중요한 시간에 정률성의 대표작품을 방송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자료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행사활동을 전개한다.



래빈들이 인민음악가정률성기념관을 참관하고 있다.

가동의식이 끝난 후 래빈들은 '군가 우렁찬 거리'와 인민음악가정률성기념관을 둘러보고나서 정률성기념관의 홍보와 전시 내용을 보완하고 향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좌담회를 가졌다.

정률성(조선족)은 중국의 걸출한 작곡가, 인민음악가이며 중국 무산계급혁명 음악사업의 개척자의 한명으로서 '새중국 창건에 돌출한 기여를 한 100 명의 영웅모범인물'에 선정되였다. 그의 평생에 항일전쟁, 해방전쟁 및 사회주의건설 등 여러 시기를 거치면서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연안송' 등 400 수의 음악작품을 창작하여 중국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불멸의 기여를 하였다./흑룡강신문

인터뷰 르포 |최경호 가수, 일편단심 '사랑의 노래'로 대륙을 감동시키다



중국동방연예그룹의 대표적인 가수 최경호, 그는 '통속적인 대중가요로 인기몰이를 한 중국 성악계의 거장'으로 통하고 있다. 중국조선족사회는 물론 중국 성악계에서도

최고의 정상급 인기 가수로 널리 알려져 있다. "30여 편의 중국 영화나 TV드라마의 주제가나 삽입곡을 부른 유명 가수"이기에 최경호란 이름만 들어도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풍부한 음량과 시원한 가창력에 탄복하면서 엄지를 빼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인기는 그가 결코 톱클래스 가수라는 데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부모나 윗세대 어른들에 대한 지극한 효심, 가족과 불우 이웃에 대한 사랑, 고향과 지인들에게 베푸는 한없는 정, 그리고 공익사업에 헌신하는 사심 없는 마음과 바른 처사에서도 온다. 그리고 역경을 딛고 꿋꿋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견인불발의 기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최경호 가수의 인생이 녹아 흐르는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애(人爱, Philanthropy)'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정, 사랑, 효'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최경호 가수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가 '2023 세계조선족 노래자랑' 심사위원에 위촉됐기에 심경을 듣고 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페를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그의 말은 가식 없이 솔직하고 겸손했다. "일본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에서 이번에 큰일을 했습니다. 주최 측이 말했듯, 우리 민족은 노래와 춤이 없이는 못 사는 민족이지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조선족들이 노래자랑을 통해 흥과 끼를 마음껏 과시하고, 또 노래자랑을 통해 한데 뭉치고, 네트워크를 만들며, 삶의 큰 활력소를 찾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분명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의 노래자랑 심사기준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가창력이 기본이 돼야겠지요. 그 다음 관중들에게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부르려는 무대 자세 같은 인성,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 그리고 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감력 같은 것을 눈여겨 봐야겠지요.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무대위에서 마음을 다해 보여주자는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매력을 더하면 금상첨화이구요. 참여자들에게 큰 무대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가수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알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에는 대형 콘서트를 열지 못했지만 그동안 14회의 개인 콘서트를 개최할 만큼 중국 가요계에 남긴 그의 족적은 우리가 다시 돌아볼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진한 인간애가 점철된 콘서트와 거장의 품격

최경호 가수에게 생애 가장 잊지 못할 콘서트는 어떤 무대였을까? 어느 하나 소중하고 벅차고 기억에 남는 콘서트들이었겠지만, 가수 생애 30주년을 맞이해 2015년 9월 24일 베이징 21세기극장에서 개최한 '동방의정(東方情)-최경호 음악회'가 그중 하나이다. 중국동방연예그룹에서 주최하고 북경의 여러 조선족 단체



와 전국 조선족기업가들의 후원하에 개최된 그 독창회의 주제는 ‘사랑과 효도, 정’이었다.

“최경호, 하면 ‘엄마 생각’을 부르는 가수로,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가수로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음악회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의 로인 800 여명을 초대해서 ‘효도’하는 음악회로 주제를 잡았다. 그 전날에는 본인이 지원금을 내서 ‘전국 조선족 로인 장기자랑’을 펼쳐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날 무대 프로그램은 정말 신경을 써서 꾸몄다. 그의 성장 스토리를 위주로 ‘효도, 사랑, 정’을 주선율로 했으며 전통과 현대 음악과 무용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구상했다.

그 콘서트 총연출을 맡은 베이징미인송미디어유한회사 오향옥 사장은 무용극 ‘천지전설’, 대형가무 ‘영원한 기념비’, ‘세월의 메아리’, ‘꿈의 아리랑’ 등을 창작한 저명한 감독으로 최경호 가수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최경호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우리 민족의 가수로 성장했다. 부모님들은 그에게 가수의 재능을 주었고 대자연은 가수의 꿈을 키워주었다. 최경호의 노래를 감상하노라면 저도 모르게 함께 웃고 흐느끼고 몸부림치다가 가수와 함께 정열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정(情)이다. 정은 최경호 음악 생애의 그래프이고 그의 노래의 영원한 원동력”이라며, “최경호 가수는 정이 넘치는 효자형 가수로서 이번 음악회는 효에 대해 최경호씨의 마음속에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아버지의 사랑, 하늘가에 어디선가 그를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은 어머니의 다함 없는 사랑, 일구월심 어화둥둥 부부 사랑, 대를 물려주는 자식 사랑, 언제나 끈끈한 맥을 이어가는 고향 사랑, 손도장을 찍으며 영원을 맹세하던 친구 사랑, 촛불인 양 자신을 헌신하며 제자들을 키워가던 스승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뚫고 우리 민족의 저명한 가수로 우뚝 솟을 수 있는 구심점이다. 따라서 효는 윗세대로부터 아래 세대로, 아래 세대로부터 윗세대로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우량한 미풍량속으로서 이번 최경호 음악회의 테마가 되는 근원”이라고 밝혔다.

콘서트의 총기획을 맡은 이춘일 베이징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도 이런 평가를 했다. “최경호 씨는 유명한 가수이지만 항상 소박하고 효도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로인들을 모시고 효도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조선족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게 됐지요”

최경호는 가난한 학생이나 독거로인에게 기부하면서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96 년 하얼빈시 조선족예술관 주최로 개최된 ‘최경호 음악 콘서트’에서 자신의 수익금 전부를 흑룡강성 오상시 사범학교에 기부했다. 1998 년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열린 ‘이재민 돕기 최경호 콘서트’에서 모금된 200 만 위안 전부를 재해구에 보내주어 국가재해구제사업 선진 개인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2003 년 연변에서 열린 ‘우애의 손 내밀기(伸出友爱之手) 최경호 개인콘서트’에서 최경호는 수익금 전부를 연변지구의 가난한 학생 1,248 명에게 기부했다. 그중에는 그해 대학 신입생 215 명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전달하고 가난한 학생과 독거로인을 위해 300 만 위안 이상을 기부했으며 랴오닝성(辽宁省) ‘사랑의동주재단’으로부터 ‘사랑의 이미지 대사’란 칭호를 받았다.

2018 년 5 월 13~14 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베이징 국도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사랑해요 엄마-최경호의 영원한 사랑 콘서트’를 례로 들어 보자. 그 콘서트는 “그리움, 격려, 감사의 3 개 장을 통해 모래 그림, 춤, 영상, 중창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을 융합하여 아름다운 노래, 감동적인 이야기, 애틋한 고백으로 깊고 따뜻한 사랑의 찬가를 선사했다”고 보도됐다.

음악회는 국가 1 급 감독이자 유명한 감독인 탕원쥐안(唐文娟)이 총감독을 맡았고, 청년 작곡가 멍커(孟可)가 음악감독, 국가 1 급 무용미디자인 양예담(楊睿擔)이 무대디자인, 국가

1 급 무대디자인 자오바오충(趙保忠)이 음향, 국가 2 급 무대디자인 허샹(賀翔)이 각각 음향·조명디자인을 맡는 초강력팀을 내세웠다. 모래화 디자이너 원보룽(袁寶龍), 옌벤 가무단 조선족 성악가 김선희·김학준, 장고춤 공연예술가 마샤오링(馬曉玲), 강승희음향사도 초청돼 최고의 감독과 스태프들로 구성됐다.

음악감독 멍커가 만든 주제곡 '사랑해요, 엄마'는 프랑스, 러시아, 조선 등의 음색과 가락으로 어우러진 최경호 가수를 위한 맞춤곡이 됐다. 또 '촛불 속의 엄마', '뿌리에 대한 푸른 잎사귀의 사랑', '엄마의 키스', '은정(恩情)' 등 명곡을 편곡했다. 멍커는 "음악회에서 밴드가 반주하고, 곡을 연주하며, 분위기 변화를 조절했다. 외음을 그린 성악은 완만한 바이올린곡과 은은한 피아노 소리, 최경호의 애틋한 고백이 더해져 그리움, 앙양(昂揚), 감동 등 다양한 정서를 풍성하게 구현했다"고 밝혔다.

탕원쥐안(唐文娟) 총감독은 "모성애는 영원한 주제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부드러운 곳이다. 우리는 다른 예술 표현 형식을 사용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진정으로 다듬는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무대 연출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편지로 진한 그리움을 시작하며 관객 한 명 한 명이 몰입해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쑹관린(宋官林) 중국동방연예그룹 회장은 "최경호 콘서트는 2018 년 동방가무단의 일지화(一枝花)인 국도(國圖)음악시즌의 첫 공연으로, 업계 안팎의 많은 관심과 함께 많은 스폰서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동양의 미래 발전에 대한 보다 넓은 전망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인 박걸 커시안그룹 회장은 "커시안그룹은 성장하면서 가난한 학생 지원, 독거로인 돌봄, 재해지역 지원 등을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 왔다. 최경호 콘서트의 주제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바치는 일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강봉사가 바로 우리가 살려야 할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라고 말했다.

최경호 가수는 30 년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녹아있는 진진한 감정을 깊은 문화적 내공이 쌓인 자신만의 목청으로, 또 전문가다운 아티스트의 자세로 노래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인간애'로 거장의 품격을 높였다…

글을 맺으며

코로나 19 로 극심한 정체기를 겪어온 우리는,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최경호 가수의 다음 행보를 기다린다. '효와 사랑과 정'으로 자신의 예술 인생을 수놓아온 최경호 가수의 앞길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도화향의 대부' 전영태, 천하일미 오상쌀과 함께 한 영광의 세월

2020 년 생전에 흑룡강신문 취재를 받는 '도화향의 대부' 전영태 종자개발 전문가.

"중국의 식량! 중국 밥그릇! 중국인민들의 밥그릇은 언제 어느때나 자기 손으로 확고히 받쳐들어야 합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가 지난 2018 년 9 월 25 일

흑룡강을 방문하고 북대황건삼강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를 시찰할 때 한 말이다.

코로나가 팬더믹이 지속되고 지구 온난화로 세계 식량난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식량 안보가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흑룡강성의 중국의 식량기지로써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식량 안보의 '바닥짐'역할은 한시도 홀시할수 없다.

비록 '도화향의 대부(稻花香之父)', '북방의 원륭평(袁隆平)'으로 불리우는 전영태 농자개발 전문가가 향년 82세로 2021년 7월 11일 타계했지만 그가 남긴 벼종자는 우리의 큰 유산으로 남아 빛발치고 있다.

2022년, 오상쌀의 브랜드 가치는 710.28억원으로 7년 련속 랜드마크 제품으로 부상되여 중국 쌀류 1위를 차지했다.

전영태 종자개발 전문가는 중화농업과학교육상, 흑룡강성과학기술중대성과상, 흑룡강성과학기술진보 2등상 등 많은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었다.

2018년 8월 28일 오상시위, 오상시인민정부는 전영태씨에게 '오상도화향의 대부 종신성과상'을 수여했다.

중국 공산당원인 전영태 종자개발전문가의 원적은 경상남도(庆尚南道) 미량군이다.

1945년 6살때 부모를 따라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로 이주했다.

전영태(田永太)종자개발 전문가는 '천하일미'로 불리우는 오상입쌀의 1등 공신이다. 그가 개발한 '오우도4호'(도화향2호.稻花香2号)가 오상입쌀을 정점에 오르도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영태씨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종자를 발견했던 이야기는 50년전인 1969년 9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그가 살고 있는 오상시 룡봉산향에 큰 서리가 때이르게 내렸다. 하루 사이에 룡봉산향은 록색으로부터 온탕 백색으로 변했다. 농민들은 페농된 논밭을 막막하게 바라보며 수확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흑룡강성의 최초 조기 벼농사 발원지로 알려진 오상에는 당지에 알맞는 내한성(耐寒性)이 강한 벼종자가 없었다.

"꼭 내 손으로 우리 오상에 적합한 내한성이 강한 벼종자를 개발할 것이야."

당시 생산대장이였던 전 씨는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고 내한성이 강하고 미질이 좋은 종자를 선종하려고 주먹밥을 만들어 허리춤에 차고 전향 300 헥타르의 논밭을 샅샅이 누비며 다녔



다. 하루, 이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7번째날 점심에 논두렁에 앉아 점심밥을 먹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벼이삭 하나가 눈에 띄였다.

"바로 저것이다!"

당시 30살이던 전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먹던 밥을 내려놓고 그 벼이삭 곁으로 다가가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는 이삭으로부터 벼대까지 조심스레 만져보고 자연이 내려다준 '선물'을 보배처럼 여겼다.

자연잡교 변이(变异株)이삭이였다. 벼종자개발에서 량질품종의 변이 발생 확률은 1만분의 2밖에 안된다. 또한 이런 변이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또한 1만분의 1이다. 전씨는 12개의 풍만한 이삭을 갓난아기처럼 소중히 여겼다. 집에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생산대에 보관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남들의 눈을 피해 논밭 한가운데에 7줄을 심었다. 첫해 7줄에서 24킬로그램의 벼종자를 수확했고 이듬해 그 24킬로그램 종자를 심어 2500킬로그램의 종자를 수확했다.

전씨는 여직 3번이나 이런 자연변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량질 종자로 개발했다.

1981년 전영태씨는 룡봉산향농업기술보급소 소장으로 전근했는데 전향 5만무(약 3333 헥타르) 논밭을 샅샅이 구석구석까지 누비며 다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 씨는 자연변이의 이삭을 발견하는 '천리안'을 소유하게 되였다. 1991년 가을, 또 한번의 선종(选种, 종자를 고르는 것)의 계절이 왔다. 전씨는 다른 사람들과 황금파

도 설레이는 논밭을 누비다 논두렁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는 간헐성 머리피 공급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의사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전영태씨는 일년에 선종기회가 한번밖에 없는데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점심시간에 보급소에 와서 점적주사를 꽂아달라고 청들었다.

의사도 그의 견결한 태도에 못이겨 그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는 손전지를 들고 밤에도 논밭에 나가 이삭을 살펴보았다. 20 여일간 선종했는데 처음 변이 종자를 발견했던 곳에서 또한번 '기적'이 일어났다. 1 만분의 2 자연변이 이삭을 또 발견했다.

그때 발견한 이삭은 단립종과는 달리 낟알이 긴 장립종(长粒种)이였다. 그리고 밥을 짓을 때 향기가 사방에 풍겼다. 장립종 벼는 일반적으로 남방지역에서 자랐는데 추운 동북지역에서 자라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몇년간의 노력을 거쳐 1993 년 마침내 새로운 종자를 개발했다. 새 종자 이름을 '938'이라고 붙였는데 이 종자의 개발은 오상입쌀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흑룡강성품종심사위원회는 '938'의 이름을 '오우도 1 호'로 명명했다. 후에 이 쌀은 중국정부로부터 1 급 량질미로 인정 받았다. 그때로부터 오상입쌀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게 되였으며 점차 '천하일미'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현재 오상 도화향 2 호(稻花香 2 号)만이 오상입쌀을 대표할수 있다. 도화향 2 호가 없다면 오상입쌀의 브랜드가 없다. 오상 도화향의 대부(五常稻花香之父)로 불리우는 전영태(田永太. 우. 81) 종자개발 전문가와 가업을 이어받은 장남 전창목(田昌穆. 58)씨가 가을에 종자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0 년에 찍은 자료사진) /한동현 기자

1999 년 전씨는 '천리안'으로 또 새로운 종자를 발견했고 몇년간의 노력을 거쳐 '도화향 2 호'를 개발했다. 일명 '오우도 4 호'라고도 한다. 이 품종의 개발은 오상입쌀의 비약적인 도약을 가져왔으며 오상입쌀의 력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다. '도화향 2 호'종자는 15 년간 심었는데 지금도 그 '위력'과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보통 3-4 년 심으면 퇴화되고 도태 되는데 이처럼 미질이 좋고 오래가는것은 드물다.

현재 동북지역에서 한해에'도화향 2 호'를 심는 면적은 1000 여만무(약 66 만 7 천 헥타르)에 달한다. 중국 길림성의 수전면적이 1200 만무, 료녕성은 900 만무가량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도화향 2 호'의 보급면적이 료녕성이나 길림성의 수전면적과 맞먹는다.

2022 년, 오상시 벼수매 평균 가격은 근당 2.6 원이고 쌀 최저가격은 근당 8 원으로 주변 쌀가격의 2 배 이상을 초과했다. 최고 판매가격이 199 원으로 주변 쌀값의 50 배 넘었다.

오상쌀 한해 수입은 110 여억원에 달하여 입쌀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중국 1 위를 차지했다.

11 월 14 일 페막한 2022 중국(흑룡강)국제록색식품산업박람회와 흑룡강 쌀축제에서 2022 흑룡강 쌀축제 품평 감정 최종 결과에서 오상쌀이 금상 1 위를 차지해 금상 2 개, 은상 5 개, 동상 3 개를 획득해 10 대 쌀 순위 중 8 개를 차지했다.

오상시는 자연생태환경이 좋고 록색피복률이 높으며 벼경작지에 공업오염이 없고 대기환경이 국가 A 급 표준에 도달했다. 오상 경내에는 라림하, 망우하, 계량하 등 네갈래의 3 대수계, 크고 작은 강 297 개가 있으며 마반산, 룡봉산 등 2 개 저수지가 있다.

오상은 북위 45 도에 위치한 세계 3 대 흑토대의 하나에 속하며 토양이 매우 비옥하고 광물질, 부식질, 유기질이 매우 풍부하다. 오상의 벼경작지대는 3 면이 산에 둘러싸이고 입구가 서쪽을 향한 말발굽 모양의 지형으로 독특한 기후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주야 온도차이가 크기 때문에 벼의 아밀로스(直链淀粉), 아밀로펙틴(支链淀粉) 함량이 적절하여 밥맛이 부드럽고 찰지며 구수하다.

근년 오상시는 쌀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원사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며 중국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 흑룡강성농업과학원, 동북농업 대학과 장기적인 연구 협력을 진행해 중점적으로 우량 종 번식, 유기 증산과 생태 보호 등 바이오과학기술과 핵심기술혁신을 돌파하여 산업화 응용을 추진했다.

종자는 쌀 품질의 기초이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벼 품종 '오우도 4 호'(도화향 2 호)는 오상 벼의 주력 품종인데 중국 최고급 품종으로 자래 매김했으며 오상 쌀을 국제 고급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했다.

벼 품종에서 흔히 보는 퇴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상시는 현대종자업 제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근년들어 17 개 종자육종 일체화기업을 집중적으로 통합하고 바이오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DNA 지문감정, 분자육종 관건기술을 돌파함으로써 종자산업 혁신에서 벗어나 작은 종자가 큰 힘을 발휘하도록 했다.

오상시는 '오우도 4 호'의 순화 및 신품종 개발 심사와 보급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흑토지 보호 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화학비료, 농약, 살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3 불'행동을 실행했다.

올해 오상시는 자금 800 만원을 통합해 100 만무의 농작물 병충해 통일 방제를 실시했으며 기계화 작업, 무인기 살포 등 현대화 하이테크 수단으로 벼 등 농작물의 병충해를 방제하여 논밭의 병충해 감소 실현에 성공했다.

2022 년 오상시의 벼재배면적은 249.1 만무이고 년간 우량미 생산량은 14 억근에 이른다. 이 두가지 지표는 모두 중국 현급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 흑룡강신문



77 년생 조선족, 북경시 통주구 구장으로

5 월 30 일 오전, 북경시 통주구 7 기 인대 4 차 회의가 원만히 의정을 완성하고 승리적으로 폐막되였다. 대회는 법에 따라 정호(郑皓)를 북경시 통주구인민정부 구장으로 선거했다.

정호 략력:

정호, 녀, 조선족, 중국공산당원. 1977 년 2 월 출생, 2002 년 8 월 사업에 참가, 재직연구생 학력, 문학박사, 고급공정사. 현임 중공 북경시 통주구위 부서기; 북경시 통주구정부 당조서기, 구장; 북경시 통주구행정학원 원장. 출처 | 인민넷-조문판

'우리말 자랑 어린이 시랑송 공연' 심양서



[본사소식 최수향 기자] '6.1'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심양시조선족련의회가 주관하고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가 주최한 '우리말 자랑 어린이 시랑송 공연'이 5 월 27 일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는 심양캐논예술학원 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시랑송에는 심양지역 조선족 어린이들과 소학교 저급학년 학생 도합 60 명이 무대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김소월, 윤동주 등 유명 시인들과 조선족 시인들의 시 60 수를 읊으며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했다.

시랑송 중간중간 심양캐논예술학원 학원생들과 심양시 화평구 서탑조선족소학교의 학생들의 장고춤, 성악, 현대무 등 공연이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했다.

시상식후 한 어린이는 이번 시랑송을 통해 우리 언어의 아름다움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우리말과 우리글을 더 잘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소감을 표했다.

심양시조선족련의회,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심양시조선족로인협회, 심양시조선족배구협회 등 민간단체 대표들과 서탑조선족소학교 지도부 성원들 그리고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회원들이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들의 멋진 시랑송 공연을 응원했다.

행사에 앞서 주최측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리경자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말 시랑송에 취미를 갖고 우리말의 매력을 만끽하며 우리말과 우리글을 전승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길경갑 심양시조선족련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우리말을 지키는 데 정력을 많이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며 협회는 향후 우리말, 우리글, 민족문화전통 전승을 위한 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료녕문보

농촌에 민박 차린 30대 조선족 부부의 '전원일기'



파란 잔디에 새하얀 벽돌집, 간간히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가볍게 나붓기는 하얀 천막지붕, 상상만으로도 힐링의 명당일 것만 같은 이 곳은 실제로 상상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화폭을 담고 있어 요즘 젊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룡정시 지신진 명동촌에 자리 잡고 있는 '베란다' 민박, 촬영장으로 깔끔하게 꾸민 예쁜 공간에서 숙박도 할 수 있다니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뷰'는 물론 '휴식'까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관광객들사이에서는 이미 핫플레이스로 잘 알려졌다.

850 평방메터되는 앞마당의 잔디도 직접 정갈하게 다듬어 놓았고 마당 한켠에 세워진 텐트안에는 자연을 그대로 담은 캠핑장비들로 가득차 있는가 하면 실내로 들어서면 화이트라인의 인테리어로 된 '가정형' 숙소가 산뜻하게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서광룡(33 살), 한설매(33 살) 젊은 부부가 소꿉놀이 하듯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아담한 공간에는 그들의 손결이 스쳐간 정성과 디테일이 구석구석에 묻어났다.



약 10 년동안의 고된 외지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와 차린 운영 4 년차에 접어든 '베란다' 민박은 2020 년 촬영애호가인 서광룡씨가 촬영장으로 물색해 찾아나섰다가 명동촌의 한 가정집을 임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완연한 스튜디오로 거듭나 운영을 시작하게 되였다. 많은 사진관들에서 찍고 있는 야외촬영과는 달리 서광룡씨의 촬영컨셉은 보통 일상을 그대로 옮겨 담은듯한 자연스러움으로 차별화 되였으며 특히 아이들이 잔디에서 뒹굴고 뛰노는 해맑은 모습은 애엄마들사이에서 하나 둘 입소문을 타

기 시작했다. 그러다 사진 찍으러 ‘베란다’를 찾았다가 청결하고 친절한 그들 부부의 서비스에 하루밤 묵어가게 되고 그 뒤로 허다한 숙박주문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민박사업까지 곁들이게 되였다.

“예전부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컴퓨터작업만 하다보니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해보는 것이 오랜 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서 자란 고향에 돌아가 그런 일을 찾다보니 지금의 이 일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해보고 싶은 일이였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속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가는 서광룡씨의 굳은 결심도 중요했지만 그의 안해 한설매씨의 동조도 ‘베란다’를 성장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였다. 몇해전 연길에서 자그마한 커피숍과 세탁방을 결합한 모식으로 ‘세탁카페’를 운영하던 한설매씨는 그때의 감각적인 인테리어 설계와 청결함을 그 무엇보다두 념두에 두고 현재의 ‘베란다’ 민박을 차리기까지 한발자국씩 내딛여온 그녀다. ‘베란다’라는 이름도 빨래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보니 해살이 밝게 비춰들오는 베란다가 눈에 들어왔고 그때 달았던 ‘베란다’ 그 이름 그대로 초심을 이어가려는 신념에서 지금까지 줄곧 고집해오던 이름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연길 도심에 살고 있는 이들 부부가 매일 40km 를 달려 이 곳 명동촌에 오는 길은 ‘질리지 않은 려행길’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먼 길을 달려와서 고객들이 손편지로 남기고 간 메모를 읽을 때면 가장 보람이 느껴집니다. ‘바쁜 일상속에 모처럼 휴식 잘하고 갑니다’, ‘너무나 즐겁게 쉬다 갑니다’,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등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글들이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재방문 고객이 많은 것도 저희 ‘베란다’에 대한 인정인 것 같아 더없이 흐뭇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관념도 전에 비해 많이 바뀌여가고 있는게 느껴질만큼 요즘은 모든 업종이 디테일에 대한 추구와 서비스정신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뜨르르한 겉치레보다도 꼼꼼히 내실을 다져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애초 저희가 결심했던 초심을 더 잃을 수가 없습니다.”

도화지같이 하얀 집을 배경으로 카메라로 누군가의 매순간을 기록하며 ‘인생샷’을 남겨주며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그들부부가 써내려가고 있는 ‘전원일기’ 꿈은 오늘도 푸르게 영글어가고 있다.



딸아이와 서광룡, 한설매 부부

조중왕래

chaozhongwanglai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존경하는 총서기동지,

나는 총서기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총서기동지는 당과 국가,인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오랜 기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에 헌신하여왔으며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인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총서기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중국공산당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건설목표가 빛나게 달성되였으며 중국의 종합적국력과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나는 총서기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이끌어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서기동지의 령도가 있고 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뭉친 중국당과 인민이 있기에 중화의 부흥실현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족을 령도하는 총서기동지의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서기동지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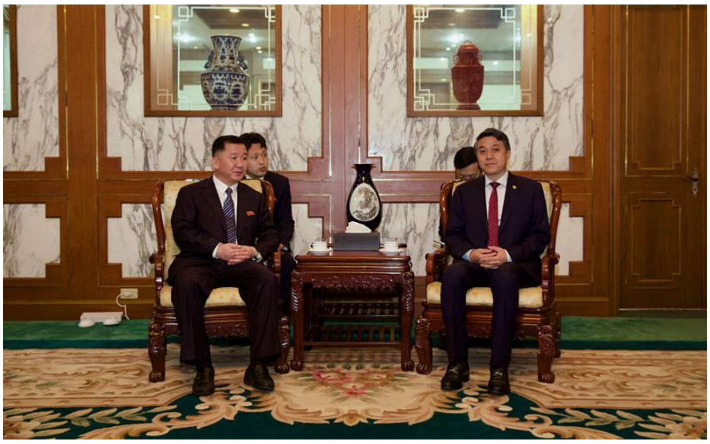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2(2023)년 6월 15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습근평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에게 보내시는 꽃바구니를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3일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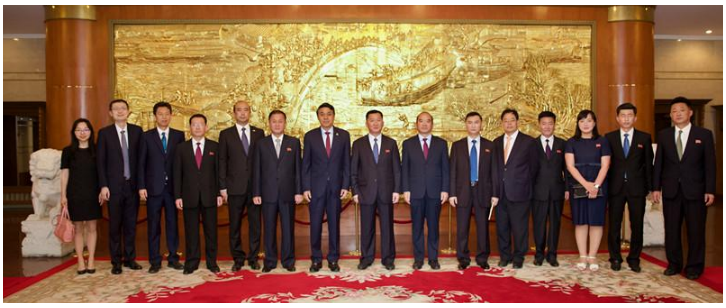


王亚军大使会见朝党中央国际部副部长文成革

2023年6月20日，王亚军大使在使馆会见朝鲜劳动党中央国际部副部长文成革，使馆冯春台公使、孙洪量公参、周长亭公参、于海洋公参，朝党中央国际部仪礼课课长金英哲、中国课副课长郑英三以及政策课、综合课部员参加。

王大使欢迎文成革副部长一行在习近平总书记对朝鲜进行国事访问4周年之际来使馆做客，并表示，近年来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5次历史性会晤指引中朝关系进入新的历史时期，掀开新的历史篇章。在习近平总书记和金正恩总书记的亲自关心和战略引领下，中朝关系保持良好发展势头。中国驻朝鲜大使馆愿同朝党中央国际部保持密切沟通配合，落实好两党两国最高领导人达成的重要共识，积极推动党际交流合作，为发展中朝友好关系做出新贡献。

文副部长表示，1983年6月，金正日同志首次访问中国，2018年6月和2019年6月，金正恩总书记和习近平总书记分别在北京和平壤举行了历史性会晤，在6月这个特殊月份里到访中国驻朝鲜大使馆具有重要意义。当前在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亲切关心下，朝中关系继续得到巩固和发展。朝方愿遵循两党两国最高领导人的崇高愿望，加强同中方相关部门及中国驻朝鲜使馆的沟通交流，同中方一道推动朝中关系取得新的更大发展。



王亚军大使祭扫桧仓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

中国驻朝鲜大使馆

2023 年 5 月 31 日，中国驻朝鲜大使王亚军率使馆外交官、驻朝中资机构及媒体代表赴桧仓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祭扫，深切缅怀志愿军先烈丰功伟绩。朝鲜外务省亚洲一局课长朴铁石、桧仓郡人民委员会副委员长郑光福等陪同。

志愿军陵园入口处，石门上用中朝两种文字镌刻着“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王大使沿着 240 级青石台阶拾阶而上，这 240 级台阶象征着 240 万赴朝作战的志愿军将士。陵门门楣上镌刻着郭沫若手书“浩气长存”四个大字，陵门后面是一座红柱、绿瓦、彩绘的六角亭，亭内石碑正面镌刻着“抗美援朝保家卫国烈士永垂不朽”的字样。碑亭梁枋四面有黄继光、杨根思、邱少云、罗盛教等志愿军英雄画像。

在庄严、肃穆的气氛中，王亚军大使一行向志愿军烈士铜像敬献了花篮。花篮的缎带上写着：“中国人民志愿军烈士永垂不朽！”王大使上前整理缎带，在场全体人员在纪念碑前鞠躬默哀，向志愿军先烈致以最崇高的敬意。

在墓区，王大使一行向毛岸英烈士墓敬献花篮，全体人员鞠躬默哀。随后，王大使和大家向包括毛岸英烈士在内长眠于此的 134 位志愿军英烈一一祭酒献花。一朵朵白菊花，一杯杯故乡酒，寄托着祖国人民对长眠于异国大地上的志愿军先烈们的无限怀念和哀思。

桧仓中国人民志愿军烈士陵园位于平壤以东约 100 公里的平安南道桧仓郡群山之中，1954 年动工，1957 年正式落成。陵园占地面积约 9 万平方米，是朝鲜规模最大、保存最完整的志愿军烈士陵园，包括毛岸英在内的 134 名志愿军烈士长眠于此。





松骨峰下祭英烈

王亚军大使赴松骨峰凭吊中国人民志愿军先烈

2023 年 6 月 16 日，中国驻朝鲜大使王亚军和使馆人员来到位于平安南道价川市南部山区的松骨峰，凭吊在松骨峰阻击战中牺牲的志愿军英烈。



王大使一行手捧鲜花徒步穿过一片玉米地，登上一座平缓的山丘。山丘上苍翠的青松刚劲挺拔，山脚下由北往南从价川通向龙源里、平壤方向的公路一览无余。这里就是在抗美援朝战史上留下辉煌一页的松骨峰阻击战的旧址。

如今的松骨峰，已不见昔日战争的痕迹，但青松、山石和山下那条公路无声地向世人诉说着当年那场惨烈的战斗。岁月流逝，人们从未忘记志愿军先烈在这里舍生忘死的英勇事迹。价川市人民委员会副委员长黄炳植动情地向大家介绍说，松骨峰战斗结束后，参加阻击战的志愿军 1 个连只有 7 人生还，朝鲜人民永远不会忘记中国人民志愿军付出的巨大牺牲。2019 年一位参加过松骨峰战斗的志愿军老战士曾来到这里祭奠，我全程参加了接待工作，深深感受到用鲜血凝成的朝中友谊牢不可破，更加珍视朝中兄弟般的情谊。

听完黄炳植副委员长的介绍后，王大使一行重温了魏巍感人至深的散文名篇《谁是最可爱的人》，在庄严肃穆的气氛中敬献花束，鞠躬默哀、洒酒致祭，深切缅怀 70 多年前将生命献给这片土地的中国人民志愿军先烈。

1950 年 11 月，在抗美援朝第二次战役西线作战中，为堵截南逃美军，中国人民志愿军第



38 军 112 师 335 团 1 营 3 连奉命在松骨峰截击敌人。在无险可守的情况下，3 连官兵以百人之力阻敌长达十几个小时，为我军主力部队聚歼敌人赢得了宝贵时间，为第二次战役的最终胜利发挥了重要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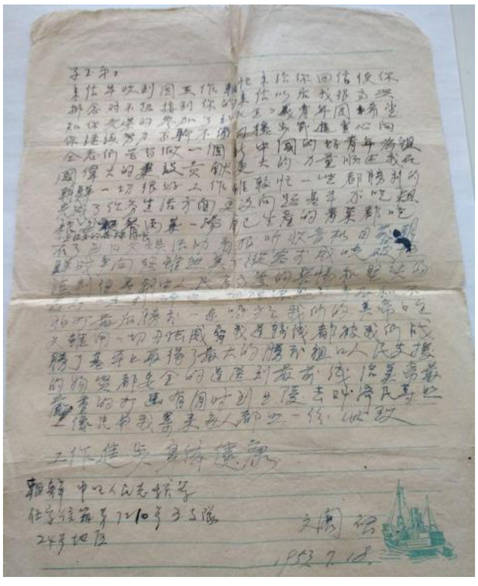
英雄往事★战地家书丨郑文阁家书：一张“全家福”背后的家国记忆

这封信是在朝鲜前滩车站任军事代表的郑文阁写给弟弟郑子玉的，写信日期是 1953 年 7 月 18 日，距停战还有 9 天。信的末尾是郑文阁想要家人相片，家人赶紧照了一张“全家福”寄去。很可惜，郑文阁没能看见这张照片，他不幸于 1953 年 7 月 25 日晚 6 时，在指挥抢运军列时遭美机轰炸而英勇牺牲，距停战只剩 2 天。

2023 年 5 月 19 日，家住沈阳的郑文阁小儿子郑继烈给记者讲述了这张“全家福”背后的故事。

子玉弟弟：

来信早收到，因工作较忙未给你回信，使你挂念，对不起。接到你的来信以后，我很高兴，知你光荣地参加了新民主主义（共产主义）青年团，希望你继续努力，不骄不躁，稳步前进，一心向老同志学习，做一个新中国的好青年，为祖国伟大的建设贡献更大的力量。



顺述我在朝鲜一切很好，工作虽较忙一些，都胜利地完成了任务。

生活方面更没问题，基本不吃粗粮，上级给的各种副食，每餐两菜一汤，自己生产的青菜都吃不了。每日文娱活动，看报，听收音机。

目前朝鲜（抗美援朝）战争问题，虽然美方纵容李承晚破坏谈判，但是朝中人民有高度的警惕和坚决的意志，一定能粉碎它一切阴谋鬼（诡）计。宁死和不怕打，最后胜利一定是属于我们的。

美帝国主义虽用一切办法威胁我运输线，都被我们战胜了，基本上取得了最大的胜利，祖国人民支援的物资都要安全地运输到最前线，给美帝最严重的打击。

有时间你到北陵去，叫济民等照一张相片给我寄来，每人都照一份。

此致

工作进步，身体健康

文阁书

1953.7.18

郑文阁写给六弟的信。

军代表

郑继烈的父亲郑文阁本来是沈阳北站的值班站长，抗美援朝战争爆发后，为了支援前线，1952 年 9 月 6 日，郑文阁奔赴朝鲜战场。当时郑文阁的妻子因病正在住院，4 个儿女最大的 9 岁，最小的郑继烈只有 3 岁。

郑继烈说：“当时别的邻居就把我母亲从医院接回来了，那意思是阻止我父亲走。我母亲当时就说了，老郑是党员，是领导，他不带头谁带头？先有国后有家，我不拖老郑的后腿。二话没说，说完了她就回医院住院去了。”

虽然自己体弱多病，虽然家里孩子多、年龄小，不过郑继烈的母亲还是选择支持丈夫赴朝参战，为了让丈夫能够安心，她特意把自己父亲从河北老家叫到了身边，请老人帮忙照顾 4 个年幼的孩子。

郑文阁初到朝鲜在浮来山车站工作，可能前滩车站比浮来山车站要大，任务要重，1953 年 1 月，郑文阁被调到前滩车站担任军事代表。他在给六弟郑子玉的信中也提到了自己的工作，“美帝国主义虽用一切办法威胁我运输线，都被我们战胜了。”

全家福

他在给六弟的信中写道：“有时间你到北陵去，叫济民等照一张相片给我寄来，每人都照一份。”

郑继烈说：“因为父亲很挂念重病住院的母亲和年幼的我们，所以他想要我们的照片。母亲特意向院方请了假，我们全家 6 人，包括姥爷、母亲、哥哥、大姐、二姐和我，照了张全家福，赶紧照着父亲提供的地址寄往朝鲜。”

不过很遗憾，郑文阁最终没有机会看到这张照片。全家福。

照片邮走之后，全家人掐算着日子，等待着郑文阁的回信，不过他们等来的，却是郑文阁不幸牺牲的消息。



郑文阁牺牲时只有 36 岁，他写给家里这封信的落款时间是 7 月 18 日，郑家人收到这封信已经是 7 月 20 日后了，拍好了照片，再邮寄到朝鲜，最少也需要十多天的时间。这样算来，郑文阁根本不可能在生前看到这张“全家福”。

在郑文阁牺牲多年之后，郑家人辗转拿回了这张特别的“全家福”，郑继烈一直小心珍藏着。

身后事

郑文阁赴朝时，郑继烈只有 3 岁，他根本记不得父亲的样子，在父亲的遗物中，一张样貌



模糊的照片，支撑了儿时郑继烈对于父亲样子的全部想象。

郑继烈说：“父亲牺牲后，我们的生活来了个翻天覆地的变化。母亲在精神上受到了极大的打击，被迫住进了黑龙江横道河子精神病院，那时 11 岁的姐姐便成了照顾家庭的主力。童年的苦涩难以言表。在生活困境中，母亲还选择过服药自杀，幸好抢救过来了，母亲又恢复了常态，使我们又有了伟大的母爱。

郑文阁烈士证明书。

“母亲体弱多病，常年住院，大姐便担当起了家庭的重担。大姐在沈阳铁路中学读书时是篮球队员，学业优异，但为了照顾家里，她考上了中专也没有去念。大姐成家后，母亲就一直跟她一起生活。

“大哥从初中到高中都是班里的班长和团支书，以优异成绩考入东北石油学院，毕业后曾在铁人王进喜钻井队就职。后来在石油会战中不幸因患癌症而在 1979 年 12 月去世。

“母亲在早年丧夫晚年丧子的沉重打击下身体越来越差，于 1987 年故去。但几十年来，母亲一直惦记为长眠在朝鲜的父亲扫墓问题，以至于成了遗愿。”

2019 年 8 月 28 日，郑继烈赴朝扫墓，终于实现了郑家几代人为烈士扫墓的愿望。

郑继烈/供图

沈报全媒体记者：周贤忠编辑：赫明责任编辑：刘新阳

평화를 쥐고 뛴 맨발의 청춘



-정석숭이 남긴 사색-

1933 년, 료녕 신빈현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집에서 정석숭은 2 대 독자로 태여났다. 그의 부친은 교육 만큼은 놓으면 절대 안된다면서 선생님을 모셔다 집구들에 상을 펴놓고 글자 익히기 반을 꾸려 동네의 아이들까지 불러모았다. <<천자문>>, <<명심보감>, <사료초서>등 서적들을 배우면서 정석숭은 차츰 청년으로 성장했다.

1949 년, 전국이 해방되고 정석숭네도 토지를 분배받았다. 가난에 허덕이던 생활이 조금 호전되나 싶던 때인 1950 년에 조선전쟁이 폭발하여 압록강변까지 전쟁의 불길이 번져왔다. 1951 년 음력설이 지나고 수많은 청년들이 항미원조에 지원했다. 갓 결혼식을 치르고 가장의 기둥인 그였지만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기 집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요긴하다는 도리를 잘 알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19 살 나이에 항미원조에 지원해나선 그는 가족들과 잠시 리별해야만 했다.

단동에 집결한 정석숭은 무기, 의복, 량식 등 전반 물자공급을 맡고 있는 후근부 경위영에 편입되여 주로 변역과 련락원 임무를 맡았다. 1951 년 4 월, 정석숭은 명령에 따라 선견부대원들과 함께 도하작전을 수행했다. 군부대 운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압록강대교는 일찍부터 적군의 폭격대상으로 되여 언제든지 적기가 날아와 폭격당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 임무를 받자마자 정석숭은 10 근의 군량, 10 군의 과자와 총대를 메고 참모, 련락원과 함께 다리 우에서 뛰기 시작했다. 길고긴 다리가 발밑에서 끝없이 연장되여있었다. “퉁-퉁-”생생하게 들리는 심장소리와 함께 한침을 달려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의 피신처를 찾아 앉으려는 그 때 방공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돼”윙-”하는 소리와 함께 전투기가 날아들었고 그들의 주변으로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졌다. 한참 후 적기가 사라지자 통신원이 말을

타고 달려왔고 안동(단동의 옛 지명)으로 돌아가 명령을 대기하라고 전했다. 정석숭은 곧바로 전우들과 함께 다시한번 다리를 건너 군영에 돌아왔다.

4 월 12 일, 적군은 80 여대의 B-29 대형 전투기를 파견해 압록강대교를 목표로 미친듯이 폭격을 퍼부었다. 천지 사이에 굉음이 울려퍼지고 산과 땅이 흔들리며 사방에 불길이 치솟았다. 압록강대교는 맥없이 끊어졌고 정석숭이 묵고 있던 3 층 집의 창문유리는 전부 깨지고 그 앞의 단층집은 폭격에 사라져 큰 웅뎅이만 남겨져있었다.

정석숭은 전우들과 함께 강을 거슬러 우로 올라갔다. 상류에서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나무배를 만들어 림시부교를 리용해 조선 의주로 달려갔다. 조선 땅을 밟은니 지형은 물로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 그에게 맡겨진 번역과 안내하는 사업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였다. 낮이면 지나가는 소 한마리를 보아도 폭격을 퍼붓는 적기를 피해 부대는 저녁에 행군해야만 했다. 정석숭은 해가 떨어지면 앞에서 걸으며 부대를 안내해 산을 넘고 재를 넘었다. 낮이 되면 피곤한 전사들은 잠간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항상 대오를 앞장 서 길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정석숭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지형을 묻고 행군길을 살펴야만 했다.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그의 발은 물집이 생겨 피고름이 흐르면서 피고름이 멎는 날이 없었다. 걷다가 힘들면 잠간 휴식을 했다. 그런데 습한 초지에 앉아 휴식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그만 치질에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한시도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정석숭은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고 또 참았다. 의사가 부족하고 약이 없는 전장에서 지탱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부대는 '일연리'라 불리우는 촌마을에 주둔하게 되였다. 지휘관은 정석숭더러 제 40 군 입원부에서 수술을 받게 하였다. 수술을 거쳐 병세가 점차 호전되자 그는 부대의 입원부에 잠시 머물게 되였다. 나라를 지키고 집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떠났지만 그 순간부터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이 끊긴적이 없었다. 정석숭은 입원부에 머물면서 자신이 돌아가기 전에 병환으로 누워있는 아버지가 세상을 뜨지는 않았는지? 임신한 안해가 농기구도 없이 밭을 갈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식구들이 굶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수술받은 이튿날, 적군 폭격기가 나타나지 않는 틈을 타 길옆에 앉아있는 그에게 두명의 녀통신원이 다가와 집에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튿날 정석숭은 같은 방에 있는 부상당한 전우와 함께 편지 가지러 마을로 내려갔다. 편지를 찾아가지고 입원부로 돌아온 정석숭은 너무도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의 침대는 적기의 기관포에 맞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이불도 사처에 탄알구멍이 나있었다. 편지를 가지러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게 뻔했다.

줄곧 전장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는 가족들과의 련락이 끊길세라 보낼 편지의 똑같은 내용을 봉투 두개에 넣어 하나는 부대를 통해 부치고 또 하나는 잠간 머물렀던 지방에서 우편을 통해 보내군 했다. 전란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편지 한통이 그의 목숨을 구했다. 1952 년 년말, 부대는 부상당한 전사들을 귀국시켰다. 그 때 정석숭도 병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게 되였다. 그는 신빈현 왕청문진 동강연조선족소학교에 교원으로 배치받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그는 전장 대신 교육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원으로 되였고 그 후로 현당위에서도 여러 직위를 력임했다.

정석숭로인의 회억록 마지막 구절에는 이러한 말이 씌여져있다. "작은 풀은 비록 보잘것 없지만 그 정신은 기특하다, 작은 풀의 정신을 대대손손 끊임없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나 다 이렇듯 사소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세상은 아름답고 미래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로년세계

6 月起，农村“新三清三拆”或将全面落地！

发表于上海导读







近些年来，在经济收入、医疗养老、生产生活等等各个方面，农村均呈现出翻天覆地的变化。

继全面推进农村人居环境整治 3 年行动之后，国家将在 2021~2025 年围绕农村的生产生活环境扎实推进农村厕所革命与污水治理，并在全面提升农村生活垃圾治理水平的同时，有效提升村容村貌，以及建立健全长效的管护机制。

三清三拆

以前，生态环境是农民最容易忽略与忽视的，但污染问题经过长时间的积累在近两年却日渐凸显。

随着《农村人居环境整治提升五年行动方案（2021－2025 年）》的持续落地实施，不少省市也将“三清”整治工作全面升级，由“旧三清”升级为“新三清”，

①全面清查危房塌房

针对农村现存的危房，国家也针对符合条件的贫困家庭开展补助措施，依照危房等级及贫困程度的不同而分别采取补助措施。

②清理公共空间

农村的公共空间已经成为农民私搭乱建甚至肆意堆放杂物的场所，因此，针对公共空间，国家也将展开集中清理专项行动。

③清查集体资产

集体有多少资产？不少农户并没有概念，而长期以来，却被个别村干部钻了空子，将集体资产占为己有，严重侵犯了集体经济组织成员们的基本利益。

因此，为了避免类似这样的问题愈演愈烈，国家将彻底清查集体资产，一经发现有个别人私自占有或挪用，将严惩不贷！

介绍完了“新三清”，那么新时期的“新三拆”又指的什么呢？

①拆除老旧农房

对于符合拆除条件的老旧农房，将会采取集中拆除的措施，以确保不再发生因老旧危房坍塌而带来的安全隐患。

②拆除违建

农村的违建行为可谓层出不穷，比如占用耕地建设农房、未经审批私搭乱建、私自给农房加盖等等，这些行为依照国家的政策规定均属于违规建设的范畴。

③拆除违规广告牌

在自家院子或者屋外私设广告牌，是不是违规行为呢？显然也是，尤其是一些靠近公路两旁的耕地上，更是有人专门建设广告牌来售卖。集中拆除违规广告牌也是一项重点工作。

结语

总而言之，农村经济的发展绝不能以牺牲环境为代价，经济发展固然重要，但农村的人居环境也同等重要。

同时，在相关部门集中开展三清三拆整治工作的过程中，也要积极配合，为农村人居环境整治贡献自己的一份力量。

推荐机制大幅调整，请大家务必将我们公众号设为★



公安部公布网络谣言打击整治专项行动 10 起典型案例

来源：央广网

央广网北京 5 月 16 日消息（记者王迟）为有效净化网络环境，依法严厉打击网络谣言，公安部网安局部署开展为期 100 天的网络谣言打击整治专项行动。公安部今日公布打击整治网络谣言 10 起典型案例。

1.江西公安机关查处曹某某频繁编造涉“江西胡鑫宇失踪事件”网络谣言案。2022 年 11 月以来，江西曹某某为吸粉引流，在网络平台频繁发布“胡鑫宇尸体是假的”“胡鑫宇家属被公安机关抓获”等谣言信息，累计点赞 6 万次、评论 1 万余条。江西联合工作专班通报调查情况后，曹某某仍然罔顾事实，持续编造传播相关谣言，并为博取关注携粉丝前往铅山县致远中学旁开启直播，扰乱社会公共秩序。江西宜春公安机关依法调查，曹某某对违法犯罪事实供认不讳。目前，江西宜春公安机关已对曹某某依法采取刑事拘留强制措施，对其造谣网络账号采取关停措施。

2.江西公安机关查处文某某频繁编造涉“江西胡鑫宇失踪事件”网络谣言案。2023 年 1 月以来，江西文某某为博取关注，在网络平台发布大量“铅山县致远中学死亡 17 条人命”“化学光头老师银行卡进账 260 万”“胡鑫宇舅舅与光头老师的录音流出”等谣言信息，累计点赞 4 万次、评论近 4000 条。江西上饶公安机关依法进行传唤，文某某对自己虚构事件扰乱社会秩序的违法犯罪事实供认不讳。目前，江西上饶公安机关已对文某某依法采取刑事拘留强制措施，对其造谣网络账号采取关停措施，江西上饶弋阳县人民检察院已提起公诉。

3.安徽公安机关依法查处郁某某编造“烧烤摊打架致一死一伤”网络谣言案。2023 年 5 月，安徽郁某某为博取流量，在明知明光市中央广场露天烧烤摊邻桌之间发生纠纷，执勤民警现场及时调解处理，无人员受伤的情况下，在网络平台编造发布“没出息，吃个烧烤还能干死一个”谣言信息，扰乱社会公共秩序。安徽滁州公安机关依法调查，郁某某对违法行为供认不讳。目前，安徽滁州公安机关依法对郁某某处以行政拘留的处罚，对其造谣网络账号采取关停措施。

4.云南公安机关依法查处李某某编造“云南工商学院有女生遭 3 名黑人性侵”网络谣言案。

5.湖南公安机关依法查处杨某某、曾某某编造“多名孩子被偷，疑似被贩卖器官”网络谣言案。

6.上海公安机关依法查处孟某、张某某等人编造“幼儿园女教师卖淫被抓”网络谣言案。

7.贵州公安机关依法查处宋某某编造“14 岁女孩被强迫结婚”网络谣言案。

8.云南公安机关依法查处郑某某编造“本村村民自述去缅甸北打工被割腰子”网络谣言案。

9.陕西公安机关依法查处李某编造网络谣言实施敲诈勒索案。

10.安徽公安机关依法查处陈某某编造“蒙城失联爷孙尸体被剖开”网络谣言案。……





让更多老人拥有家门口的高质量护理

来源：中工网

今年 4 月，北京市嵌入社区的首批十家老年护理中心陆续开诊。收治的患者主要是两大类，一类是辖区内的慢性病急性期的老年人；另一类就是从上级医院治疗出院，但是仍然需要专业治疗的老年人。据了解，北京首批十家老年护理中心投入使用之后，辖区居民需求量很大。（据央视网 6 月 18 日报道）

嵌入社区的老年护理中心把优质的医疗资源下沉到社区，是实实在在的惠民之举。让需要就近治疗的老年人能在家门口享受到高质量的护理服务，便利了患者的生活。对老人们背后的家庭而言，老年护理中心可靠的护理与关怀，为他们分担了照顾老人的重担，让他们能放心工作和生活。

辖区居民对老年护理中心的需求量很大，也说明，要实现老有所养、老有所依，社区基本养老服务必须跟上。相关部门在推进更多老年护理中心加快建设的同时，可以引导社会力量加大对老年护理中心的投入。多方努力，共同满足更多老年人的护理需求，让更多家庭得到关怀与支持。



好消息！这些线路，有高铁了！

来源：人民网

记者从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以下简称国铁集团）获悉，7 月 1 日零时起，全国铁路将实行新的列车运行图。调图后，全国铁路安排图定旅客列车 10592 列，较现图增加 46 列；开行货物列车 22182 列，较现图增加 394 列，铁路客货运输能力、服务品质和运行效率进一步提升。

国铁集团运输部负责人介绍，新图实施，将显著提升我国铁路网的整体功能和运行效率，进一步优化客货运输产品供给，为我国经济运行整体好转和人民群众便捷出行提供可靠支撑。

一是扩大京津城际铁路和广深港高铁运能，助力京津冀协同发展和香港与内地人员往来。采用动车组重联运行、开行长编组动车组等方式，扩大京津城际铁路运能，每日增加 3.1 万个高铁座席；首次开行沧州西经京沪高铁、石济高铁至石家庄的 G 字头动车组列车 2 列，进一步便利沿线群众出行，助力京津冀协同发展。统筹广深港高铁日常线和高峰线列车开行结构，增加日常开行的跨境 G 字头动车组列车 18 列，其中首次开行成都东至香港西九龙跨境 G 字头动车组列车，助力香港与内地人员往

来。

二是增开进出东北高铁列车，更好服务东北全面振兴。首次开行齐齐哈尔南至北京朝阳间 4 列停站少、旅速快、旅时短的 G 字头动车组标杆列车，运行时间大幅压缩，最快 6 小时 25 分可达；通过延长运行区段，安排开行哈尔滨西至南京南间、哈尔滨西至襄阳东间长距离 G 次动车组列车各 2 列，东北至华北、华中、华东地区高铁运能进一步提升。

三是西部铁路提质运营，为西部大开发注入新动能。…

四是压缩普速旅客列车运行时间，全面调整旅游列车运行线。…

五是大力增开货物列车，提升铁路保通保畅能力。…

六是提升客货运输服务品质，让旅客货主体验更美好。…

铁路部门提示，2023 年暑期运行图（7 月 1 日至 8 月 31 日实行）与三季度运行图同步启动，各铁路局集团公司将根据客流需求适时增开临时旅客列车，努力满足旅客朋友暑期出行需求。调图后客货列车开行信息和服务资讯，旅客、货主朋友可通过铁路 12306、95306 网站、客户端、微信等渠道查询，或关注各地铁路部门发布的动态信息、各大火车站公告，以便合理安排行程和货物运输事宜。

올해 전국에서 정향양성 군사(军士) 23225 명 모집! 신청지침→



최근 교육부, 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와 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는 <2023 년 정향양성 군사모집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군정〔2023〕357 호)를 하달하여 2023 년 전국 정향양성 군사모집사업을 각지에서 륙속 가동했다.

관련 부서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총 48 개 지방 대학이 전국 17 개 성(자치구, 직할시)을 대상으로 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를 위해 23225 명(녀성군사 307 명 포함)의 정향양성 군사를 모집하게 된다. 정향양성 군사에 지원하는 응시자는 2023 년 일반고등학교 모집 전국통일시험 응시 고급중등교육학교 졸업자여야 하고 나이는 만 20 세(2003 년 8 월 31 일 이후 출생)미만, 미혼이여야 하며 최소 5 년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정치 및 신체 조건은 의무병 모집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향양성 군사 모집에 대한 신체검사, 정치평가는 각 성 징병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각 시(주), 현(시, 구) 징병사무실은 지정 지점에서 진행한다. 신체검사, 정치평가를 통과한 응시자만 서류제출자격이 있다. 신체검사, 정치평가, 지원서 작성,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부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 밖에 정향양성 군사에 지원한 응시자가 신체검사, 정치평가를 모두 통과했으나 모집기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의무병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까호브까언제붕괴는 제 2 의 《북부흐름》 사건에 불과하다

지난 6 일 우크라이나의 드네쁘르강하류에 위치한 까호브까수력발전소언제가 붕괴되는 엄중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까호브까수력발전소언제의 수문들중 절반이상이 심히 파괴되고 저수지의 많은 물이 방류된 결과 드네쁘르강수위가 10m 이상 상승하고 수천채의 주택들이 침수되였으며 2 만여명의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세계 3 대곡창지대의 하나로 불리우는 이 지역에 음료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주요언제가 파괴됨으로써 엄중한 인도주의적 및 생태환경피해를 초래하고 전세계 알곡가격상승을 부추길수 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전세계가 이번 언제파괴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에 대해 걱정하고있을 때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모든 책임을 로씨야에 넘겨씌우기 위해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젤렌스끼당국은 로씨야가 까호브까언제를 내부에서 폭파하였다고 하면서 언제붕괴의 책임을 로씨야에 전가해보려고 시도하고있으며 미국과 서방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남부지역에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공격을 저지시킬 목적밑에 감행된 로씨야의 고의적인 파괴행위라는 황당한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절대로 감출수 없는 법이다.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젤렌스끼는 《언제가 터졌지만 우리가 령토를 수복하는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고 실토함으로써 로씨야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언제를 터뜨렸다는 저들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해버리였다.

실지 끼예브도당이 떠들어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공격이라는것은 로씨야가 자기 수중의 언제를 폭파하는 고육책을 쓸 정도로 대단한것이 못된다.

며칠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지상공격에 나서기는 하였지만 로씨야무력의 방어계선을 돌파하기는커녕 매일 수천명의 유생력량과 수십대의 땅크 및 장갑차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기술기재를 잃고있다.

이것은 젤렌스끼도당이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지원밑에 아주 오래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는 반공격작전이 영웅적로씨야군대의 불퇴의 방어선에 부딪쳐 처참한 좌절을 면치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씨야가 품들여 구축한 강력한 방어지대를 제손으로 침수시키고 우크라이나군의 반공격을 맞이하려 한다는 끼예브당국과 서방의 주장은 설득력이 결여된 궤변이라고밖에 달리 평가할수 없다.

반면에 이번 언제폭발로 로씨야의 크림공화국에 대한 음료수공급체계가 마비되고 로씨야에 새로 통합된 지역의 평화적주민들이 막대한 물질적피해를 입게 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젤렌스끼당국이 미국의 묵인하에 이번과 같은 특대형범죄를 자행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까호브까수력발전소언제가 붕괴된 당일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지난해 원인불명의 해저폭발로 발뜨해에 있는 《북부흐름》가스수송관이 파괴되기 3 개월전에 미중앙정보국이 우크라이나의 특수작전그루빠가 가스수송관을 폭파

하려는 계획에 대해 알고있었다고 보도한것이 우연치 않다.

이것은 로씨야산천연가스를 서유럽에 공급하던 《북부흐름》가스수송관폭발사건의 배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견해를 확증해주는 부정할수 없는 증거로 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로씨야에 전쟁범죄감투를 씌우기 위해 발악하는 우크라이나의 흉심과 평화적주민들에게 가능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강도를 조절하고있는 로씨야의 의도를 놓고볼 때 이번 인도주의재난사건에 누가 진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겠는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결국 까호브까언제붕괴사건은 로씨야에 인도주의재난의 책임을 넘겨씌우고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반공격작전에 유리한 정치군사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모결탁한 또 하나의 자작극,제 2 의 《북부흐름》사건에 불과하다.

제반 사실은 젤렌스끼도당이야말로 저들의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의 생명도 서슴없이 희생물로 삼는 불한당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실증해주고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돌발사건들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당국과 그를 조종하는 미국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것이다.

미국과 젤렌스끼당국이 제아무리 흑백을 전도해보려고 해도 국제사회의 엄정한 눈초리를 피할수 없다.

저들의 부당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엄중한 인도주의적재난을 초래한 미국과 끼예브당국의 반인륜적망동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전란에 몰아넣은 젤렌스끼도당은 기필코 《노아의 홍수》에 빠져들어 자기의 운명을 끝마치게 될것이다.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오성진

본격화되는 수소에네르기개발움직임

최근 수소에네르기에 대한 세계적관심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화석에네르기를 대량사용하면 이산화탄소방출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촉진되여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된다. 이런 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리상적이고 깨끗한 에네르기로 인정받고있는것이 바로 수소에네르기이다.

수소에네르기는 발열량이 높고 연소생성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으며 원천이 풍부한 우점을 가지고있다. 수소에네르기는 탈 때 물밖에 산생되는것이 없기때문에 원유나 석탄, 가스를 대신할 전망성있는 연료로 간주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50 년에 가서 세계적으로 수소에 대한 수요는 현재의 10 배에 달하며 수소에네르기는 소비되는 에네르기총량의 20%를 차지할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 수소에네르기가 세계의 에네르기구조를 변화시키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보고있다.

그 리용전망이 매우 밝은것으로 하여 여러 나라가 저마끔 수소에네르기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서 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능률적인 수소제조 및 저장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수소공급소를 비롯한 하부구조건설을 다그치고있다.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있다. 연구사들은 빠른 기간내에 액체수소저장설비제작기술을 발전시키고 대량의 수소를 먼거리수송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있다.

빛촉매를 리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있다.

수소에네르기발전소가 주목을 끌고있다.

어느한 나라에서는 총부지면적이 3 700 ㎡인 수소에네르기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생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소를 리용하는 자동차개발이 적극화되고있다.

여러 나라 자동차제작업체들이 원가가 눅은 수소내연기관을 개발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어느한 자동차제작업체에서 개발한 수소자동차는 수소연료소비량이 100 ㎞당 5ℓ이하이고 기관효률은 휘발유기관보다 25% 높으며 한번 충진한 연료로 거의 500 ㎞를 주행할수 있다고 한다.

물을 넣으면 자체로 수소를 생산하면서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에 들어간 나라도 있다.

오늘날 깨끗하고 리상적인 수소에네르기를 리용하는것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아랍세계에 진정한 봄이 도래하고있다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제 32 차 아랍국가련맹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10 여년만에 수리아도 포함하여 22 개 성원국들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지역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아랍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며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행동을 취할데 대한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였으며 이를 위하여 수리아위기,팔레스티나위업,수단분쟁을 포함한 지역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과 해당한 조치들이 강구되였다.

지역나라들의 자주적지향과 열기를 그대로 반영한 이번 회의는 10 여년전 미국과 서방이 몰아온 《아랍의 봄》의 파국적인 후과가 드디여 가시여지기 시작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010 년 12 월 뜌니지의 지방도시에서 생활조건개선을 요구하여 벌어진 주민들의 시위는 미국과 서방의 사촉밑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폭력행위로 번져졌으며 이를 출발점으로 《아랍의 봄》은 악성종양마냥 순식간에 여러 나라들에로 전이되였다.

2011 년초부터 에짚트와 리비아,예멘을 휩쓴 《아랍의 봄》의 후과로 이 나라들에서는 합법적인 정부들이 전복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으며 2011 년 3 월에는 수리아까지도 대동란에 휘말려들고 이때부터 장기적인 위기가 시작되였다.

《미국식가치관과 민주주의》를 강제이식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집요한 막후조종에 의하여 초래된 혁명 아닌 혁명,봄이 아닌 봄인 《아랍의 봄》의 후과로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흐르가던 아랍지역은 삽시에 혼란과 무질서,충돌과 대결,살륙이 범람하는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미국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상투적수법에 매달리면서 아랍나라들을 사분오렬시켜 아랍위업의 핵인 팔레스티나문제가 뒤전에 밀려나게 하려고 꾀하였다.

또한 이란의 《위협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안전담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중동아랍나라들에 무기를 팔아먹는데만 급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독점적리윤은 굴러가는 눈덩이마냥 불어난 반면에 지역나라들사이의 분렬과 알륵,사회적불안정과 긴장수위는 최대로 고조되였다.

그러나 철두철미 자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며 지역내 국가들을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한 한갖 도구로,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부당한 기도는 날이 갈수록 지역나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번 회의에서 수리아위기,팔레스티나위업,수단분쟁을 포함한 지역문제들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기 리익의 견지에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한것은 미국의 대중동정책이 초래한 《아랍의 봄》이 되돌릴수없이 사멸되고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제 32 차 아랍국가련맹수뇌자회의는 이 지역의 주체인 지역나라들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한 사실상의 기나긴 겨울이였던 《아랍의 봄》이 마침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봄이 도래하고있음을 알리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할수 있다.

미국이 아랍지역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차지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화해와 단합이라는 공동의 닻을 올린 지역나라들의 거세찬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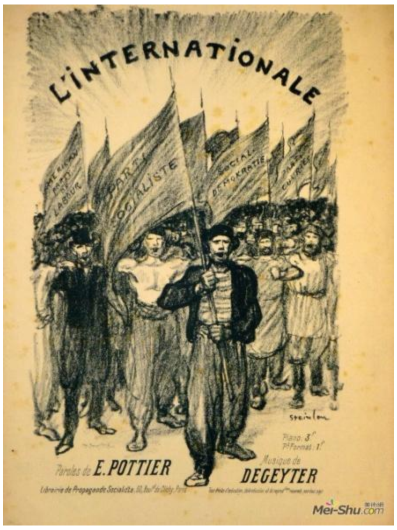
국제문제평론가 정영림



상식

changshi

인류해방투쟁의 노래 《인터나쇼날》



전세계 근로대중이 오늘도 즐겨부르는 노래들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나쇼날》이다.

프랑스에서 창작된 노래《인터나쇼날》은 자본의 철쇄를 짓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을 호소한 전투적인 혁명가요이다.

１９세기에 프랑스로동계급이 국내반동파들을 빠리에서 쫓아내고 력사상 처음으로 빠리꼼뮨을 선포하였다.

그후 어느날 시인이며 시장이였던 에젠 뽀찌에의 사무실로 한 로동자가 뛰여들어와 베르사이유도당이 시내를 공격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뽀찌에는 프로씨아와 강화조약을 맺은 베르사이유도당이 １０만명에 달하는 프로씨아군과 함께 꼼뮨을 진압하기 위해 빠리로 출동한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사태가 이렇게 긴박해지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뽀찌에는 날아오는 적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터로 뛰여갔다. 수만명의 로동자, 시민들이 벌써 결사전을 준비하고있었다.

《동지들! 베르사이유반혁명도당이 우리를 공격하고있소! 원쑤들은 꼼뮨을 없애려고 덤벼들고있소! 마지막순간까지 우리의 정권을 지킵시다.꼼뮨 만세!》

뽀찌에의 연설이 끝나자 《꼼뮨 만세!》라는 함성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베르사이유도당을 비롯한 국내반동파와 프로씨아군이 시내중심으로 밀려들었다.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꼼뮨용사들이 선두에서 싸웠고 남녀로소 가림없이 모두가 떨쳐나 그들을 도왔다.

꼼뮨용사들은 여러 차례나 적들의 공격을 좌절시켰다.탄약도 다 떨어졌고 희생자들은 늘어났다.

빠리시내는 로동자들이 흘린 피로 물들었다.

뽀찌에가 지휘하는 바리케드로 원쑤들이 쳐들어왔다.

뒤로 물러설 곳도 없었다.선두에서 원쑤격멸을 웨치며 싸우던 뽀찌에는 그만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는 전우들의 도움으로 빠리교외에 잠시 은신하였다.

원쑤들은 뽀찌에를 찾으려고 수색전을 벌렸다.

적들은 며칠사이에 ３만명이상의 꼼뮨성원들과 로동자들을 재판도 없이 마구 잡아죽이였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심한 고열속에서 앓고있던 뽀찌에는

빠리꼼뮨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념을 담아 시 《인터나쇼날》을 지었다.

이 시는 오랜 기간 묻혀있다가 꼼뮨참가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되였다.

１８８８년 로동자작곡가 데쉐떼가 《인터나쇼날》의 가사에 곡을 붙였으며 로동자합창단에 의하여 처음으로 불리워졌다.

１９１０년 제２국제당은 코펜하븐에서 열린 대회에서 《인터나쇼날》을 정식 국제로동계급의 노래로 결정하였다.

로동계급과 피압박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 노래는 전세계 근로대중을 국제적단결과 인류해방위업에로 부르는 투쟁의 무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 국조를 형상한 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리 나라의 국조인 까치를 형상한 우표(개별우표 4 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에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길조로 불리우며 친숙해진 까치들이 훌륭히 전변된 삼지연시와 송화거리, 경루동의 살림집들과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 모습과 한데 어울려 이채롭게 형상되여있다.

또한 우표들에는 《조선의 국조 까치》라는 글발도 부각되여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들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열의를 더해주게 될것이다.



건강 개선하는간단한 방법

건강을 위해 비싼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헬스장을 리용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짧은 시간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래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건강 팁들을 소개한다.

◆식사시간 5분 더 늘이기



매끼니 식사를 10분 만에 후딱 해치우는 사람이라면 5분 정도 시간을 더 늘여 천천히 식사를 해보도록 한다. 우리 몸이 포만감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식사 중간 수저를 잠시 테블에 올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좀더 꼼꼼하게 음식을 씹도록 한다. 모든 음식마다 맛과 질감에 집중하며 즐기는 습관을 갖는 것도 미식가가 되는 동시에 과식을 막는 방법이다. 이처럼 식사 속도를 늦춰 섭취량을 조절하면 복부팽만감이 나타나는 빈도도 줄일 수 있다.

◆야외에서 잠간 앉아있기

한적한 아침시간 아빠트단지내 벤치도 좋고 좀더 시간이 있다면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도 좋다. 단 몇분간 해빛을 받으며 자연을 둘러보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을 눈에 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으며 좀더 가까이하면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뇌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친구나 가족에게 련락하기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률이 더 높다. 사회적 뉴대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관상동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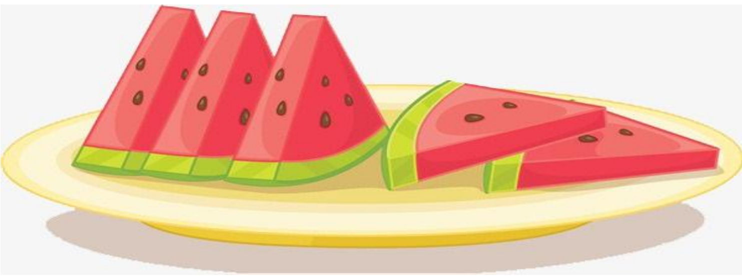


질환이 발생할 위험률이 29%,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32% 더 높았다.

이는 외로움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져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큰 모임을 갖긴 어렵더라도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안부를 묻거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시간은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다.

◆15 분 짧은 운동

미국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15 분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평균 3 년 더 길다. 이 짧은 운동으로도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등의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5분이라는 시간에는 업무 도중 1 시간 혹은 2 시간에 한번씩 계단을 오르는 등 중간강도 이상의 운동을 20~30 초씩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하루 지난 수박 먹으면 중독된다? 4가지 포인트 기억!

수박을 자른 후에도 먹을 수 있는지는 변질여부와 병원성 세균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며 하루밤이 지났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수박을 먹은 후 중독되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수박이 세균의 작용하에 심하게 부패하고 변질되여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대장균과 같은 특정 병원성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르지 않은 신선한 수박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무균상태이다. 수박을 자른 후 절단면이 세균에 의해 오염되는데 세균의 수량와 류형은 주로 보관환경, 온도 및 시간에 따라 부동하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환경에는 세균이 많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 수록 수박에서 번식하는 세균의 수량과 류형이 많아진다.

하지만 수박을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씻고 자른 후 바로 먹을 수 없는 수박은 랩으로 싸서 랭장고에 보관한다면 하루밤이 지나더라도 세균 총량이 크게 감소되고 병원성 세균이 없는 경우 식용안전성은 보장할 수 있다. 반대로 수박을 잘라서 상온에 두거나 혹은 칼과 보관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낮에 몇시간 방치한 후 먹어도 설사나 중독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하루밤 지났느냐가 아니라 수박을 자른 후의 보관방법이다.그러나 자른 수박은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색상과 냄새가 크게 변했다면 안전을 위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박을 먹는 건강요령을 요약하자면 첫째, 자른 수박은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하고 너무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박은 좋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 한다. 특히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고 소화기계통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 셋째, 수박을 식사나 야식대신으로 먹으면 안된다. 넷째, 구강궤양이 있는 사람은 수박을 적게 먹을 것을 권장한다.



잘쓰지않는 우리 글자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ㄱ	개	걔	게	계	괴	귀		과	궈	괘	궤
ㄴ	내		네	녜	뇌	뉘	늬	놔	눠		
ㄷ	대		데		되	뒤			둬	돼	뒈
ㄹ	래		레	례	뢰						
ㅁ	매		메		뫼				뭐		
ㅂ	배		베		뵈			봐			
ㅅ	새		세		쇠	쉬		솨		쇄	쉐
ㅈ	재		제		죄	쥐		좌	줘		줴
ㅊ	채		체		최	취			춰		췌
ㅋ	캐		케			퀴		콰	쿼	쾌	퀘
ㅌ	태		테		퇴	튀	틔				퉤
ㅍ	패		페								
ㅎ	해		헤	혜	회	휘	희	화	훠	홰	훼
ㄲ	깨		께		꾀	뀌		꽈	꿔	꽤	꿰
ㄸ	때		떼		뙤	뛰	띄	똬		뙈	뛔
ㅃ	빼		뻬								
ㅆ	쌔		쎄		쐬	쒸	씌	쏴	쒀	쐐	쒜
ㅉ	째		쩨		쬐			쫘			

칸에 없는 글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선교편직공장

인기있는 <<갈매기>>상표 제품들이 평양시안의 백화점들과 상점들에서 판매되고있다.



《갈매기》 상표를 단 운동복, 겉옷, 속옷, 수영복, 샤쯔 등은 형태와 색갈이 다양하고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다.

공장에서는 옷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의 기호와 시대적미감에 맞는 다종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다양한 형태의 옷도안과 설계를 생산에 도입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들 누구나 기술학습의 주인이 되고있다.

련관단위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소형고온고압염색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창의고안으로 염색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있다.

그리고 모든 가공공정들에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매 편직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재단직장의 기대공들은 공장도안실과 기술준비실과의 련계밑에 새로운 형태의 편직물에 대한 재단을 과학기술적으로,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
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